



# 時 計 塔

SIGETOP



2012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9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文大鉦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燧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해는 다시 찾아 왔습니다. "혹용" 임진년의 거창하고 원대한 신년 계획을 운운하기에는 앞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동창회의 Convention과 Cruise를 생각하는 마음뿐이니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 여러 가지로 역부족함을 자조해 봅니다.

남다른 축복 가운데 서울 의대인의 흔적을 가지고 의사로서 그리고 각자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도 다양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 동문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뿌듯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목적이 이끄는 대로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맡겨 주신 직분을 감당해 온지도 반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이나마 이모저모로 구상하고 또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기존의 Convention과 새로운 Cruise를 병합하고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등록비를 급격히 낮추면서 기대와 근심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격려해주시고 말씀대로 참여 해주신 많은 동문들께 대한 고맙고 빛진 마음, 마음은 동참하고 싶은데 건강상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동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또한 한편으로 많은 임원들의 역할을 무너지게 하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몇몇 분들의 단체행동이나 아직도 적지 않은 동문들의 무관심등 역시 아쉬움과 미련이 적잖이 남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비교적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접하면서 더 바라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저 올해만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창회의 활성화가 해를 거듭하여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갈수록 힘들어 지는 동창회의 운영을 위하여 묵묵히 한결같이 더불어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각자의 은사와 기회를 배가 시키며 동창회를 빛나게 하시는 회장단을 비롯한 현 임원들, 그리고 동창회 사무실의 office manager의 부단한 수고에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미국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한국만큼은 서울 의대인의 혜택을 충분히 못 누리는 것도 사실이나, 그럼에도 이제껏 우리 자신은 누가 뭐래도 마음속 깊이 서울 의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생각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못지않게 나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귀한 재산이 있다면 아마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는 친구와 동기 나아가서는 모든 동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멀리 사는 사촌보다는 가까이 살며 자주 보는 이웃이 더 소중한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의 값어치는 결코 자주 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국 우리를 하기 나름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체 동창회 모임뿐만 아니라 동기회나 지역 동창회의 모임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전에도 언급한바 동기회나 지역 모임을 상징하는 크고 작은 보트들이 수시로 다가오는 종과 속에 정박할 수 있고 계속 견재 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으로 지켜 주는 모선의 존재와 그 역할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시파 시계탑, 모교에 대한 장학금 및 여러 가지 지원 사업, Directory 발행, 사회봉사 자선사업, 새로이 정착하는 미주 후배 동문들에 대한 후원, 동부나 서부나, 아니면 각 학년을 넘어서서 보다 더 폭 넓은 많은 동문들 간의 유대 등은 전체 동창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타깝고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결코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동문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헌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람과 의욕을 느끼도록 북돋아 주신 대다수 동문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 현장 답사 차 Orlando Hotel을 둘러보고 더불어 Cruise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재미있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모임과 여행이 되리라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Convention Chair로 수고하시는 서인석(73) 동문 및 권경덕(64) 동문의 헌신적인 노력과 치밀한 계획, Local Convention Chair로써 세세한 도움을 주시는 김재석(72) 동문, Scientific Co-chair로서 CME를 끌어오신 강유구(67) 동문의 부단하고 조직적인 학술 대회 준비와 더불어 함께 수고하시는 한승신(76) 동문, Non-CME를 담당하신 Mrs. 석창호(72), 그리고 Fashion show를 준비하는 Mrs. 최준희(64), Mrs. 곽승용(71) 모두가 이미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재무로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는 심인보(83) 동문과 총무 권오기(78) 동문, 각 committee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동기 회장님들의 수고도 지대하였습니다.

또한 저녁 Party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공식 Program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뉴욕 지부를 활성화한 부회장 백승원(79)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될 첫날의 연회는 Talent show/Fashion show를 포함하여 Live Band에 맞추어 흥겨운 파티가 될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년의 "서수남과 하청일"의 하청일 씨의 사회와 노래, Comedy, Dance with Band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즐겁고 재미있는 연회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Cruise 일정은 이미 다녀온 경험과 더불어, 또한 이번 답사를 통하여 가능한 배안의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탐색한 결과, 모두가 즐겁고 여유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배가 계속 항해하는 이틀 낮 동안만 진행되는 우리 자체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일 매일의 cruise 자체의 프로그램을 병합한 우리들에 걸맞은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항지에서 즐길 수 있는 Excursion program도 이제껏 많은 cruise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마저도 어찌면 새롭고 길이 추억에 남을, 흥미롭고 그리고 결코 후회 없이 즐기게 될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앞날이 갈수록 힘들어 질 것이라고 거론을 할 때마다 맨 먼저 내세우게 되는 이유는 많은 동문들이 은퇴를 하는 반면 새로이 미국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들의 동창회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살펴보았던 동문들의 현황을 참조하신다면 아직도 1200명 회원 중에 70%가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개업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은퇴하신 동문들 중 건강상 힘드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지만 한편 많은 동문들께서 말이 은퇴지 일상생활은 아직도 여행이나 다양한 취미 활동 등으로 분주하신 것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들어 가는 동문들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외람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도 아직도 많은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내지 일종의 근거 없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지 않은 동문들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껏 동창회 모임에 거의 가 본 일도 없을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나 동기회는 몇 번, 아니 자주 가고 있지! 시계탑, Directory 그거야 보내주니까 받고 있지." 설사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려 나오는 소리가 아닐 수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언질이 정작 다른 동문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한편 우려가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라기보다는 진심에서 애타게 드리는 간절한 바람이니 이러한 동창회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전환, 진지한 동기부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 동창회는 누가 뭐래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동감하신다면 달했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창회의 모임이나 사업에 동참하셔야만 여러분이 지금도 아끼고 계속 간직하고 싶은 각 동기회나 지역 동창회의 생명도 오랫동안 견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껏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동문들은 Convention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회비 납부도 서너명 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적어도 이제부터는 어느 동문도 동창회에 대한 무관심 내지 비협조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히 언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발간되는 directory와 시계탑은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얘기도 강력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와 '희생'을 감내하는 각오와 용기 없이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듯이 이러한 결단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동창회의 안정과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인목과 인내가 절실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오는 후배들의 숫자를 염려하기 보다는 필요하면 회장단이 다시 거꾸로 올라 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뭉쳐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언필칭 동창회의 모임은 분명히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와 보람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모임은 무엇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여야,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참석해야 나 같은 동기가 없어서 재미없다는 이유가 없어지고 (워낙 동기가 몇 안 되는 학년은 예외가 되겠지만) 또한 프로그램도 알차게 재미있게 준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거울이며 살아 있는 상징은 역시 Annual Convention 입니다. 비록 매년은 참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시기상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미처 등록하지 않으신 동문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실로 감사했던 지난해를 돌이켜 보며 새해에는 더욱 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창회가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을 앞에 두고 활력이 넘치며 기지개를 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 대옥 드림 President, SNUCMAA of North America



# The 29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Jan. 20 (Friday) ~ 22 (Sunday), 2012 / Hyatt Regency Grand Cypress, Orlando, FL

## GENERAL PROGRAM

### Friday- January 20, 2012

4:00 PM - 5:30 PM	Delegate meeting
2:00 PM - 7:00 PM	Registration
6:00 PM - 7:00 PM	Cocktail
7:00 PM - 11:00PM	Class Reunion, Talent Show and Fashion Show

### Saturday- January 21, 2012

6:30 AM - 11:00 AM	Breakfast and Registration
7:45 AM - 12:05 A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12:05 PM - 1:05 PM	Business meeting with Lunar New Year Celebration
8:00 AM - 6:00 PM	Golf Outing (1:00 P.M.: Shut gun)
1:05 PM - 5:10 P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5:10 PM - 6:10 PM	Panel Discussion with Ex-Presidents
6:30 PM - 7:00 PM	Cocktail
7:00 PM - 11:00PM	Grand Banquet

### Sunday-January 22, 2012

6:30 AM - 11:00 AM	Breakfast
7:40 AM - 10:45 A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 CME PROGRAMS

### Saturday- January 21, 2012

8:00-8:30	<b>Headaches: "Watch The Red Flags"</b> Sung Ho Bae, M.D. (1971)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Neurology
8:25-8:50	<b>The Changing Face of Alzheimer's Disease</b> James J. Lah, M.D., Ph.D. (John Soosup Lah, M.D., 1950) Associate Professor and Vice Chair of Neurology
8:50-9:15	<b>Nmda Receptor Complexes in Schizophrenia: A Point of Convergence</b> Chang-Gyu Hahn, M.D. Ph.D Associate Professor of Psychiatry
9:15-9:40	<b>Neurosurgery</b> Hee Won Jung, M.D., Ph.D Professor of Neurosurgery,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05-10:35	<b>Oncoplastic Breast Surgery</b> Namsun Paik,MD.,Ph.D (1973) Professor of Surgery, Director, Ewha Womans University
10:35-11:05	<b>Robot Prostatectomy: Status in 2012</b> David I. Lee, M.D., F.A.C.S. (Jung Pil Lee, M.D., 1964)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Urology
11:05-11:35	<b>Current And Future Advances in Total Joint Replacement for Hip &amp; Knee Arthritis</b> Michael N. Kang, M.D. (Yoogoo Kang, M.D., 1971) Staff orthopedic surgeon, Insall-Scott-Kelly Institue, NY
11:35-12:05	<b>Aches and Pains With Aging</b> Kim, Jehong, M.D., FAAPMR (1971) Medical Director,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13:05-13:30	<b>Evidence Based Medicine &amp; Cardiovascular Disease</b> Jong Koo Lee, M.D. (1957) Professor Emeritus of University of Alberta
13:30-13:55	<b>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b> Jaehong Roh, M.D. (1971) Associate Professor of Cardiology, Columbia University, NY, NY
13:55-14:20	<b>Evolution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b> Jae S. Kim, M.D., F.A.C.C (1972) Cardiologist, Florida Heart Institute, Florida Hospital, Orlando, FL
14:20-14:45	<b>Innovations in Cardiac Surgery: A Century of Progress</b> Joong H. Choh, M.D., FACS (1969) Co-Director, Cardiovascular Division, Sherman Hospital, Elgin, IL
15:10-15:40	<b>Role of Antiviral Therapy in Patients With Hepatitis B Virus (HBV) 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b> Hie-Won L. Hann, M.D. (1961) Professor of Medicine, Jefferson Medical College
15:40-16:10	<b>Cirrhosis of The Liver</b> Hwan Young Yoo, M.D.,Ph.D. (1985) Associate Professor of Clinical Medicine Division
16:10-16:40	<b>Advances in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b> Kyung-Suk Suh, M.D., Ph.D. (1984) Professor of Surgery, Chief of HBP Surgery
16:40-17:10	<b>Age Related Eye Diseases</b> Young Soo Hahn,M.D. (1967) Retina Consultant, Queens Long Island Medical Group

### Sunday-January 22, 2012J

7:40-8:05	<b>Cancer: Overview</b> Seung Shin Hahn, M.D. (1976)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8:05-8:30	<b>Advances in Breast Cancer Treatment</b> Han, Hyo Sook, M.D. (1999) Assistant Professor of Oncologic Sciences
8:30-8:55	<b>Recent Advances in Treatment of Lung Cancer</b> Noah Chan Choi, M.D. (1963)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8:55-9:20 **The Advance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nd One Key Player-t Cell**

Tae Kon Kim, M.D.,Ph.D. (2001)  
Resident, Department of Medicine

9:45-10:15 **History of Surgery: Mystery and Legends**

Yang, Jung-Hyun, M.D, Ph.D., FACS (1973)  
Professor of Surgery, President of Konkuk University

10:15-10:45 **New Mechanism of Aging: Nuclear Barrier Hypothesis**

Sang Chul Park, M.D., Ph.D. (1973)  
Professor of Biochemistry

10:45-11:15 **Update in Aneurysm Treatment**

In Sup Choi, M.D., FACR  
Professor & Chair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 ACCREDITATION

This activity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Areas and Policies of 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through the joint sponsorship of Jefferson Medical Colleg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Jefferson Medical College of Thomas Jefferson University is accredited by the ACCME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physicians.

Jefferson Medical College designates this live activity for a maximum of 11.0 AMA PRA Category 1 Credit(s)™. Physicians should only claim credit commensurate with the extent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 FACULTY

### Sung Ho Bae, M.D. (1971)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Neur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

### James J. Lah, M.D., Ph.D. (John Soosup Lah, M.D., 1950)

Associate Professor and Vice Chair of Neurology Emory Cognitive Neurology Program  
Alice and Roy Richards Chair of Neurology, Emory University, Atlanta, GA

### Chang-Gyu Hahn, M.D. Ph.D

Associate Professor of Psychiatry, Associate Director of Cellular and Molecular Neuropath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 Hee Won Jung, M.D., Ph.D

Professor of Neurosurgery,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 Namsun Paik,MD.,Ph.D (1973)

Professor of Surgery, Director, Ewha Womans University Cancer Center for Wome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David I. Lee, M.D., F.A.C.S. (Jung Pil Lee, M.D., 1964)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Ur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hief of Urology, Penn Presbyterian Medical Center, Philadelphia, PA

### Michael N. Kang, M.D. (Yoogoo Kang, M.D., 1971)

Staff orthopedic surgeon, Insall-Scott-Kelly Institue, NY

### Kim, Jehong, M.D., FAAPMR (1971)

Medical Director,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Jameson Health System, New Castle, PA

### Jong Koo Lee, M.D. (1957)

Professor Emeritus of University of Alberta, Director,  
Jong Koo Lee Heart Clinic, Seoul, Korea

### Jaehong Roh, M.D. (1971)

Associate Professor of Cardiology, Columbia University, NY, NY

### Jae S. Kim, M.D., F.A.C.C (1972)

Cardiologist, Florida Heart Institute, Florida Hospital, Orlando, FL

### Joong H. Choh, M.D., FACS (1969)

Co-Director, Cardiovascular Division, Sherman Hospital, Elgin, IL

### Hie-Won L. Hann, M.D. (1961)

Professor of Medicine, Jefferson Medical College  
Director, Liver Disease Prevention Center,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Phila, PA

### Hwan Young Yoo, M.D.,Ph.D. (1985)

Associate Professor of Clinical Medicin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 Hepatology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dianapolis, IN

### Kyung-Suk Suh, M.D., Ph.D. (1984)

Professor of Surgery, Chief of HBP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Young Soo Hahn,M.D. (1967)

Retina Consultant, Queens Long Island Medical Group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Queens, NY

### Seung Shin Hahn, M.D. (1976)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Syracuse, NY

### Han, Hyo Sook, M.D. (1999)

Assistant Professor of Oncologic Scienc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College of Medicine  
Assistant Member, Dept. of Women's Oncology, Breast Program, Tampa, FL

### Noah Chan Choi, M.D. (1963)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Harvard Medical School,  
Distinguished Scholar in Thoracic, Oncology, Director of Thoracic Radiation Oncolog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Cancer Center, Boston, MA

### Tae Kon Kim, M.D.,Ph.D. (2001)

Resident, Department of Medicine  
Jackson Memorial Hospital, University of Miami, Miami, FL

### Yang, Jung-Hyun, M.D, Ph.D., FACS (1973)

Professor of Surgery, President of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 Sang Chul Park, M.D., Ph.D. (1973)

Professor of Biochemistry, Lee Gil Ya Cancer and Diabetes Institute  
Gachon University, Incheon, Korea

### In Sup Choi, M.D., FACR

Professor & Chair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Lahey Clinic Medical Center  
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rlington, MA



# 동문동장 및 지부소식

## 남가주 지부 신년 총회 및 하례식

서울의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고용규)의 신년 총회 및 하례식이 지난 1월 7일 토요일 LA의 Oxford Palace hotel에서 예년보다 많은 16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신 구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한 총회에 이어 시작한 여흥 순서에서는 Violin, classic guitar 독주, baritone 독창, Persian dance 및 6인조 rock band 연주와 함께 즐거운 dance와 karaoke 경연 대회 및 풍성한 선물 등등, 모든 동문이 밤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동창회의 발전과 친목을 다졌다.



### 95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뉴욕시 동쪽에 있는 Southhampton에 거주하시는 이규용(41) 선배님께서 지난

11월 14일 95세 생신을 맞이하셨다. 선배님은 우리 동창회 2회 회장을 지내셨다.

지난 10월 8일에 있는 대뉴욕지부 이규용배 골프토너먼트에 나오셨고, 11월 5일에 있는 의과대학 동창회 연말파티와 12월 10일 있는 뉴욕지구 총동창회 연말파티에도 참석하셨다. 선배님께서 부디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용면)

### 김병석(59) 동문 책 발간



김병석 동문(59, 출판위원)과 부인 임경자 씨가 공저로 '최면으로 창조하는 삶' 을 발간했다.

김 동문은 지난 10월 한국에서 출판기념행사와 7개 도시 순회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또한 이번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후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문 출판인 포럼>에서 다른 동문 저자들의 책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 Turf 의대 최인섭(72) 동문, 합춘 동아의학상 수상



Lahey Clinic 메디컬 센터에서 International Neuroradiology 과장으로 업적을 쌓아온 최동문이 2011년 합춘 동아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총 동창회에 오백만원, 미주동창회에 \$5,000을 쾌척, 모교 및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 모든 미주 동문들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 사진: 자랑스러운 최인섭 부부, 강신호 명예회장님과 함께

##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 1941 이규용
- 1949 박근수 김지익
- 1951 이상하 오정희
-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양겨영 박병원
- 1956 조동립 신명수 주창준 서상철 박삼기 유호준 김신형 도상탁
- 1957 윤 찬 이동성 정진목 김양호 임종식 임종원 정구영 김용진 김일훈 한성택 강영섭
- 1958 김숙희 이종국 최정희 최창송 박용화 이만택 김부근 이운순 김시한 김기태 김수산 박호현 한영수 유지열 임영신 김백년 배영섭 이종용 이동복 신상균 최병두 김윤범 최창송
- 1959 강재룡 신영철 최용천 김교안 김용덕 박용균 이교락 박선용 김은섭 한달수 김병석 나길진 강상진 박용순 임낙중 한성업 김병구 최종진 서경화 최혜숙
- 1960 김영환 김완주 박준명 이순환 정낙섭 염극용 한성수 김택경 김인환 임필순 이상일 전희근 이덕승 송영조 조재동 임종원 권기홍 이종석 이효빈 박정우
- 1961 장성환 이희경 고의걸 이재승 정철용 이해원 한수용 양명교 정의철 김유홍 이재두 강창욱 계훈택 박승균 황현상 손기용 안창현 김영기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최지원 서휴열 이희백 김영철
- 1962 김석식 송영두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구정율 오태요 이영웅 박종건 정정수 남성희 박진수 민경환 이상무 김호균 장병호 이용길 정 태 권익현 조명호 김한중 박찬형
- 1963 추재욱 김태형 윤진수 송용덕 김택수 왕규현 이승현 임춘수 양찬기 이범세 고영희 윤영욱 한광수 조열하 김주용 김현화 김태용 조한원 박세목 마동일 이능석 김승태 김청하 이병준 윤영섭 장인호 권영재 김현철 김현철 한기현 장세곤 이기환 김광섭 김계운 진병화 추재욱 김갑중 선우건영
- 1964 김용두 권정덕 허선행 유창남 박세준 이재풍 정유석 조성준 최준희 이종성 양운택 홍선경 김태환 이주영 유 강 조동준 임병훈 임대복 신두식 김용국 이정은 이유찬 박한영 이흥표 이용만 이종오 한태진 이광신 윤흥기 라찬국 안연승 이길수 유효명 선우세현
- 1965 서좌일 손광호 이범식 민경탁 정길화 채도경 이광선 이한중 박수안 이정의 조성구 채무원 전영균 구경희 이화성 황규정
- 1966 김충규 한일성 장한교 조의열 민발식 김의신 이명희 이성근 윤명선 조관상 최영자 김우신 조규용 정양수 최순채 김은한 김용재 김진수
- 1967 이영근 김성철 유진일 지일성 이민우 이준식 육태식 최무용 한영수 이근웅
- 1968 김 철 박정식 차재철 노영일 송창호 서운석 안광환 이건일 홍광신 김경인 황훈규 김영남 김주평 임공세 김희주 문광재 최 철 서진석 신규호 안세현
- 1969 임웅규 이충호 신영찬 송용재 최종일 김중권 김홍서 안병일 윤효윤 김병오 김창남 이지훈 도상철 송기인 엄규동 최종진
- 1970 방준재 조남현 박홍식 조영갑 최원일 홍 건 이정길 김형달 유철희 여준규
- 1971 김효순 강유구 고기영 강창홍 홍성진 배성호 서정자 강태수 김일영 오상현 서상현 장 철 김유식 조세진 이원택 황동하 이종일 노재홍 김창규 이희영 김재홍 오동환 김 훈 정인용 광승용 박동수 장문석 최수강 최영철
- 1972 오용호 장병호 석창호 최인섭 이기진 김재석 정희연 이신재 박명영
- 1973 이영복 김정용 나두섭 심완섭 민인기 고용규 방병기 문대욱 오인환 서인석 이계석 송정자 임준형
- 1974 권철수 김웅진 구재훈 이홍재 이진현
- 1975 전경배 김자역
- 1977 박일우 강준희
- 1979 백승원 이혁엽
- 1983 심인보 전원일
- 1989 오무현
- 1948 한용현 오동렬
- 1950 이철남 나수섭
- 1952 김정준 박종식 전병구
- 1954 이동식 김갑균

### Convention Donation

한용현(48)	100	강신호(52)	10,000	최창송(58)	200	이종용(58)	125
이만택(58)	200	최창송(58)	200	김병구(59)	25	염극용(60)	100
이종석(60)	100	강창욱(61)	50	이혜원(61)	100	박찬형(62)	100
추재욱(63)	2,000	권정덕(64)	4,000	허선행(64)	500	이재풍(64)	200
유창남(64)	500	최준희(64)	300	김주평(68)	75	차재철(68)	200
이건일(68)	125	안세현(68)	75	윤효윤(69)	250	엄규동(69)	25
배성호(71)	300	서정자(71)	75	정인용(71)	525	석창호(72)	500
나두섭(73)	100	민인기(73)	100	방병기(73)	200	문대욱(73)	10,000
서인석(73)	1,000	김천일(73)	100	정희원(75)	2,000	한승신(76)	100
김정아(76)	100	권오기(78)	200	백승원(79)	2,000	박남훈(80)	25

### General Donation

박근수(49)	75	나수섭(50)	100	노용면(55)	500	서상철(56)	25
김윤범(58)	100	강상진(59)	200	황현상(61)	75	김계윤(63)	75
진병학(63)	125	이유찬(64)	200	송관호(64)	10,000	정양수(66)	100
김성철(67)	75	이건일(68)	100	김형달(70)	50	여준규(70)	50
서상현(71)	5	김유식(71)	175	박동수(71)	75	최인섭(72)	5,200

### Charity

강신호(52)	10,000	노용면(55)	200	이문순(58)	300	최창송(58)	1,000
김은섭(59)	500	강상진(59)	300	권기홍(60)	1,000	이희경(61)	200
민경환(62)	100	이상무(62)	100	김한중(62)	200	임춘수(63)	100
한기현(63)	200	선우건영(63)	200	홍선경(64)	100	한태진(64)	100
권정덕(64)	200	최영자(66)	500	이성근(66)	200	민발식(66)	200
최순채(66)	200	한영수(67)	200	최 철(68)	100	강창홍(71)	600
조세진(71)	50	정인용(71)	100	광승용(71)	300	석창호(72)	300
방병기(73)	100	서인석(73)	300	김용진(74)	100	김자역(75)	100
백승원(79)	3,000	심인보(83)	500				

### Green Project

박준홍(51)	10,000	김은섭(59)	125	염극용(60)	100	김은섭(59)	125
한성수(60)	75	선우건영(63)	200	민발식(66)	100	조세진(71)	125
정인용(71)	250	서인석(73)	100	김천일(73)	200		

## 동창회비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1~June 30, 2012)

MEMBERSHIP DUES	\$125.00
DONATION	\$
DONATION FOR 2012 CONVENTION	\$
CHARITY FUND	\$
GREEN PROJECT FUND	\$
<b>TOTAL</b>	<b>\$</b>

Name: \_\_\_\_\_ Class: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미주재단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소식

서울대학교미주재단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강창홍(71) 동문이 통증 연구지원금으로 15,000달러를 기증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5000달러씩 의과대학 마취 통증과(과장 이상철 교수)의 통증연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익명으로 61년도 졸업 동문께서 200,000 상당 생명보험을 기증 하였습니다.  
2011년도 미주재단에 기부하여 주신 의대 동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의신(66) \$80,000 (해의학 분야 연구기금), 김기태(58) \$100,000 (김기태, 노정욱 장학기금), 이회백(61) \$10,000 (의대 학생 장학금), 강세부(61) \$450, 임현재(65) \$1,000, 김은섭(59) \$1,000, 강창홍(71) \$15,000 (통증 연구 지원금), Eugene Ohr(동문2세) \$10,000 (의대 학생 장학금), 익명(61) \$200,000 상당 생명보험 기증.  
협조하여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 Manuel M. Lee, (이만택) Presid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 1430 Broadway Suite 305 / New York, NY 10018 / Tel: 212-768-9144

## 봉사활동 보고

최영자(66, Chair of Charity Committee)



\* Love and compassion for "others" are the ultimate source of human happiness, and the very core of our being and altruism. "The more we care for the happiness of others, the greater our own sense of well-being becomes" - Dalai Lama  
\*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ommitted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 i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 Margaret Mead

Charity committee는 2007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2011년에 정식 Charity Committee 로 인정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봉사기관에 기금보조를 하였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7-2008: FUNDING BALANCE	\$12,200
- SAM-CMWM Foundation	\$3,000
- The Korean-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3,000
-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	\$3,000
* 2008-2009: FUNDING BALANCE	\$4,750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2,000
- Haiti earth quake:	\$2,000
* 2010-2011: FUNDING BALANCE:	\$2,250
- Japan earth quake	\$1,000

각 기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Korean-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뉴욕가정상담소

뉴욕가정상담소는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이중언어로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또는 가족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가족상담을 통해 위기중재 및 장, 단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YCPT): 청소년 지도력을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상담원의 지도 아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프로젝트로 선택하여 행사기획, 자금모금, 행사주최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스스로 진행합니다.

\* 심대 지지 그룹: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십대들에게 자아정체성과 동료, 가족간의 관계, 이성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 등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십대들은 서로 지지와 격려를 주고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 언니 형 멘토링 프로그램: 7세부터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언니, 형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니,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모델을 가질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신감, 대인관계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 호돌이 프로그램: 6살에서 12살 또래의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학교 상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건강한 자기표현 능력 및 사회성, 학업능력 및 리더쉽 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저소득층, 언어나 문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민자 가족,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가정의 한인어린이에게 입학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 법적,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까지 동행하여 통역과 기타 필요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접근금지명령,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이민관련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위시그룹: 위시(WISH)는 여성들의 자아성장을 위한 서포트 그룹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성적 폭력 및 의사소통문제, 자녀문제, 시집식구들과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한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SL 수업과 일대일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무직 취업을 대비하는 훈련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도형 주택 프로그램: 문화적와 언어 차이를 겪음과 함께 신체적 보호가 필요하신 이민 여성분들을 위해 KAFSC가 오랜 기간의 숙박을 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상담 외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 새 해를 새로운 해로

김병석(59) 시계탑 편집장



시간을 따라 지나가는 세월의 도중에 지금 우리에게 이 계절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불러온다.  
새 해, 그렇다 목은해가 아닌 새해가 온다.

모두에게 나이만큼 보낸 세월과 그만큼 맞은 새해의 숫자가 안겨있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를 세다가 이제껏 길들여진 한 해의 단어가 아닌 정말 소중한 시간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 벌써.....

다가올 새 해의 시계탑도 진정 새로운 숨결이 느껴지기를 소망한다. 이번 호 편집 마감때 아주 오랜만에 원고가 넘쳤다는 쾌고! 새해에도 이 기쁨이 더해가고 내용도 흥미진진해지기를 바란다. 매년 시계탑이 나갈 때마다 새로운 Topic이 실려 나갈 수 있도록 편집진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동문들께서도 시계탑을 읽고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새로운 2012년에 만날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이고 싶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 내의 다른 봉사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내담자들이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2.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

청소년들을 위한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갱, 가출, 폭력, 중퇴, 결석, 마약, 성문제, 인터넷, 친구들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교사/지도자 상담이론과 실제, 사역현장 적용, 영적 교정기술,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 청소년들로 인한 문제로 인한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전문사역, 문제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토들을 연결시키는 사역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 3. SAM-CMWM, Inc : Spiritual Awakening Mission- Christian Medical Welfare Mission

SAM is a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 aims to provide medical care and humanitarian aid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to the border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funds was used to provide MESKs (medical emergency supply kits) to North Korea through the Dan Dong-CMWM Hospital located in China. We donated 60 MESKs. Dr. S. R. Park (63) is the founder of the organization.



2011년에는 많은 동문들께서 지원하셨습니다. 42명의 동문들이 \$33,050을 pledge 하시고 \$21,350을 납부하여 주셨으며 balance는 \$11,600 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과대학의 긍지를 살려서 봉사생활에 여러분들의 조언 기대합니다.

\* The Art In Giving Art is the giving by each man of his evidence to the world and discover the pleasure of giving. -Robert Henri

\* Those who wish to give, love to give, discover the pleasure of giving. The true Art in Giving is to give from the heart without any expectations of a return.

\* Giving creates a pattern of happiness, joy and love in your life beyond your expectations

\*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y wasted." - Aesop



##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이번 시계탑 편집모임을 예정대로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뉴욕, 후러싱에 있는 장원루에서 가졌다.

허선행 위원만 사정으로 불참하고 모두 참석했으며 노용면, 이희경, 김병석 동문들의 부인들도 편집 교정에 참석하였다.

이번 분기에는 원고가 많이 들어와서 편집하고 발행하는 동안 아주 흐뭇해하였다. 이 오랜만의 고마움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동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투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침 세모라 감회가 깊었으며 특히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scientific convention에 편집위원들이 참석하여 동창회 일에 더 공헌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대부분 편집위원들은 대대로 동창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이미 해온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동창회장님의 신년사도 신게 되며, 1월 15일까지 출판 완료하고 컨벤션에서 배부하고, 우송을 하기로 했다.

Scientific Convention의 자세한 schedule도 신기로 했다.

이번 컨벤션에 처음으로 출판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도하기로 하는 Book Writer's Forum에 많은 동문 저자들이 참석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축원하며 저녁 9시 30분 편집 모임을 마쳤다. - 김병석 편집장



# 女醫師와 Asian American Physicians: 이제는 Minority가 아닌가?

한(이)혜원 (61, 필라델피아)

오늘 배달된 제퍼슨 의대 bulletin의 표지에 웃음된 여학생들이 전면을 꽉 채우고 있다. 게다가 맨 앞줄에는 동양 얼굴이 셋이나 있다. 표지 제목이 50 years of female students at Jefferson Medical College이다. 맨 뒷면에는 1961년부터 2010년까지를 연도별로 본 여학생수의 비율이 나와 있다. 여학생이 1961년의 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55%까지 올랐다가 2010년에는 50%로 되었다.

얼마 전에 서울의과대학생의 50% 이상이 여학생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법 하지만 얼마전 사회화 하는 어느 분의 설명에 의하면 요즈음 한국의 남학생들은 의학보다는 현재 한창 번창하고 미래에 발전성이 있는 Technology (IT)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오래전 1966년에 하버드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던 시절이다. 하루는 병원 복도로 지나가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던 어린남자가 "There is a nurse" 라고 했다. 당황한 엄마가 "No, dear, she is a doctor" 라고 하니 이 꼬마 녀석은 자랑스러운 듯이 "No, she is a girl. She can't be a doctor" 라고 하던 일이 기억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미국에서도 여자들은 대개 간호원이었고 그 병원에 레지던트나 여자 교수들(attending)도 남자 수에 비해 수가 무척 적었다. 그 당시의 하버드 의대 class에 여학생은 놀랄 정도로 극소수였다.

더 심했던 것은 하버드병원에서 인턴을 뽑을 때 일이었다. 그 몇 년 전 하버드 졸업반에서 다섯 학생이 이 병원에 인턴을 지망했는데 네명의 남학생만 되고 같이 지망했던 여학생은 안 되었다. 할수없이 그녀는 Boston City Hospital로 가서 인턴과 첫째 레지던트를 하고 하버드로 다시 지망해서 들어왔는데 한 해를 낮추어 Junior resident로 받아 주었다. 그사이 그녀의 동기들은 이미 senior resident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인턴으로 있어서 그녀는 내 직속상관이었고 나에게 아주 따뜻하고 잘 가르쳐 주고 친절히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자기의 위급이 된 동급생 senior resident와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도 어쩌나 자주 다투던지 참 이상하다 했다. 훨씬 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 house officer들은 늘 잠이 부족한 레지던트 생활이라 그녀의 눈은 늘 수면부족으로 빨게 있어서 그녀의 별명은 Cat이었다. 그 후 그녀는 Infectious Disease Fellowship을 마치고 하버드의 faculty로 남아 활동이 컸고 나도 후에 가끔 만나면 여전히 따뜻한 상급생이었다.

지금 존스 홉킨스에서 종양학 조교수로 있는 우리 큰 딸이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인턴할 때이다. 하루는 병실에 누워있던 노인환자가 "Nurse, nurse, could you get me a bed pan" 해서 "I am not a nurse. I'll get you a nurse" 라고 하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 인턴에게 감히 이런 소리를 했겠냐고 하면서 정말 화가 났었다고 했다. 아마 남자 의사들은 이런 경험은 해 보지 못하셨으리라.

거의 10년 전, 한국에서 꽤 큰 사업을 한다는 환자가 간질환으로 필라델피아로 내진 왔었다. 70여세 된 분으로 키 큰 체격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주위에 젊은 보좌관들이 넷이나 동행해 왔었다. 환자가 왔다고 해서 대기실에 가서 나를 소개하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 저는 남자선생인 줄 알았는데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들어 오십시오" 하고는 따라오는 그의 불안한 표정을 등 뒤로 느끼면서 앞에 서서 두벅 두벅 걸었다. 물론 나중에는 아주 가까워 졌지만 이런 일은 여자의사로서는 적어도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일은 젊어 보일수록 더 잘 생긴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또 오랫동안의 의사생활을 해 왔으니 전에 당하던 오해는 받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버드에서 종양학 fellowship을 하고 있었을 당시 나에게 제일 괴로웠던 경우는 환자들이 보스턴에서 멀리 떨어진 메인주나 버몬트주에서 100여 마일을 운전해서 하버드 교수님들을 만나러 왔을 때이다. 환자의 초진은 fellow가 할 일이라서 자주 내 차례가 오곤 했다. 환자와 온 가족들이 걱정과 불안에 싸여 대기실에서 초초히 그 교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 제일 당혹스러웠다. 얼마나 실망을 줄까 하는 우려에서 였다.

처음 만나는 의사가 멀리서 뵈려온 유명한 남자 백인교수가 아니고 작은 체구의 동양인 그것도 여자가 인터뷰를 하러 들어오니까 말이다.

다행히도 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교양이 있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든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병력을 친절히 서술해 주곤 했다. 그래서 나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인터뷰는 순조로이 되곤 했다. 아직까지도 기쁜 기억으로 남은 것은 인터뷰가 30분쯤 해서 끝날 즈음에는 환자와의 rapport가 형성되고 치료받는 중이나 그 후에는 피어나 신임을 주고받는 사이로 되던 일들이다. 사실 그때 보아 주었던 환자가족들 중에 아직도 크리스마스 카드나 심지어 생일카드를 보내주어 가끔 전화교환도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느 무엇보다도 정성과 신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우리 61년 class가 여학생이 가장 적은 학년중의 하나였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다. 사실 1955년 의대에 합격하여 흥분해서 첫날 학교에 가니 여학생은 겨우 우리 셋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찔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위학년에는 10명이 있었고 모두 씩씩하고 시원시원했다. 우리 바로 밑반도 6명이었고 역시 당당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셋중 명숙, 종원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서울양반 규수들로 덕성 있고 교양 있고 얌전하여 이복출신인 나도 그분들을 본받아 행동해야 했으므로 말없고 얌전해야 했다. 워낙 말이 적은 두 사람이라 우리 셋은 휴강시간에도 하는 얘기도 없었다. 그래서 한번은 소설책을 따로 보고 나서 교대로 읽은 얘기도 해 들려주기로 했다. 우선 얘기를 하려면 입담도 좋아야 하고 좀 떠드는 편이 되어야 듣는 사람도 재미있고 흥분도 되는데 그것도 한 번씩 차례로 해 보다가 흥이 안 나서 그만 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숙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의대시절 6년 동안을 제일 진실하고 훌륭한 人間인 이 두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는 축복이다. 6년간만 아니라 아직 까지도 우리는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10여

년 전 명숙이가 시카고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학회 참석차 그 도시에 가지만 하면 그 바쁜 일과에도 명숙이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여 거기 계시던 동기, 계훈택씨, 신광승씨, 또 선배 언니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해 주었다. 또 명숙이 딸이 Brown 대학 다닐 때는 딸과 같이 필라델피아 우리 집에 와서 반가이 만나곤 했다. 한국에 있는 종원씨도 마찬가지다. 자주는 만나지 못하지만 서울에 가서 모임이 있을 때면 언제나 만나서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곤 한다.

제퍼슨 bulletin 표지에 동양계 여학생이 많이 눈에 띄었던 얘기로 돌아 가 본다. 내가 1988년 이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병실에 다니는 회진 팀을 보면 우선 여자도 적었거나 동양 얼굴이 별로 안 보였다. 20여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차츰 차츰 여자수도 많아졌고 요즈음 눈에 더 띄는 사실은 4명이 회진 팀으로 걸어가는데 동양 얼굴이 한두 명 보이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Asian American 의사가 수가 많아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직접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소위 APAMSA (Asian Pacific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라는 모임이 미국의 의과대학마다 APAMSA Chapter로 있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모임이 1995년 1월에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미 400여명의 Asian American medical students가 모였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미동부의 의과대학생들이었다. 그 회의에 나는 세 Keynote speaker 중의 한사람으로 초청 받았었는데 아마 여자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이 여자 의사얘기를 많이들 듣고 싶어 했었다. 그전에도 Bryn Mawr College나 Smith College 등의 여자대학에도 강의초청을 받곤 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Double minority 문제' 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 미팅에서 그들이 나에게 부탁한 강의 제목은 "Climbing the Academic Ladder: Challenges facing the Asian American Physicians" 였다.

이 젊은 의대학생들은 미국사회에서 동양계 의사로서의 장래가 어떨지 하는 우려가 많았을 것이고 특히 나의 경우에서 double minority(여자, 동양인)에다 foreign medical graduate인 세 가지 disadvantage를 가지고 어떻게 survive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제퍼슨에서 MD, PhD 학생이었던 큰 딸과 의대생 9명과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 큰 강당에 가득찬 동양계 의대생들을 보면서 모두 마음이 뿌듯했었다. 아직도 기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제 강의 외에 또 Panel discussion에도 참석해 달라고 하면서 각 panelist에게 "Do we have an ethnic obligation?" 란 제목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답으로 'Hepatitis B among Asian Americans' 이란 과제를 제시하기 위

**연두시**

## 푸르름을 묻는다

임 경 자 (시인, 59' 김병석 부인)

새해 아침  
뿔마당에 선 나무에게  
푸르름을 묻는다

속 깊은 나무의 고백은  
땅 속 뿌리의 곁곁을 파고 흰 줄기 안에  
너무 많아 볼 수 없는 복숭의 빛깔이라

나무는 본다  
물도 불도 오르고 올라 구름 되어 하늘 식구가 되고  
기쁨도 분노도 피고 피어 하얀 마음이 되는 것

맞아주고 보내주며 지나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야  
모두를 품어 안아  
가장 화창한 날을 기억한다

언제든지  
고개 들어 바라보면  
고향은 하늘로 오고  
날마다 눈뜨는 시각이 새 날을 불러준다

밭 밑 얼음 속을 깨고  
생명의 실레임은 아침을 흔들며

새해 아침  
나무는 우리에게  
푸르름을 묻는다.

해서 동양계 미국인을 괴롭히는 이 질병에 관한 많은 data를 400여 copy를 만들어 두 사깁백에 가득 넣어 딸과 돌이켜 들고 갔던 일이었다.

최근에 머리에 총상을 입은 미국여자 국회의원에 대한 소식이 매일 뉴스에 나왔을 때 자주 대표로 나와 설명하던 Trauma Center의 훌륭한 neurosurgeon이 한국계 의사였던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자랑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텍사스로 장기회복 치료로 옮겨 간 후에 그녀를 책임진 의사도 한국계 의사였다.

이민생활로 힘들게 몸을 버려가며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은 의례 대학을 보내는 우리 한국이민 부모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믿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세들이 이제는 미국사회의 여러 분야에 당당히 나와 활동하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한국의 위상과 함께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남자 간호원이 요즈음에 부쩍 늘고 있다. 약 20년 전 우리 어머니가 제퍼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실 때이다. 어느 날 건강하게 생긴 남자가 들어와서 어머니는 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남자가 침대 시트를 바꾸면서 아예 자기를 번쩍 들어 옮기면서 일을 쉽게도 해 주더라. 나중에는 그가 간호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아이구네!' 하고 속으로 감짝 놀라셨지만 오히려 힘이 좋아서 남자 간호원도 좋더라고 말씀하셨다.

요즈음 한국인 2세중에서 남자애들이 간호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미국부모에게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직은 이런 간호대학 지망을 한국인 부모와 의논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반대,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듣고 있다. 그래서 가끔 병실을 지나갈 때 한국계 젊은 남자 간호원을 만나면 무척 반갑다.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 이제는 여의사의 위치, 미국에서의 동양계 의사들의 상승하는 위상, 남자 간호원들의 증가 등 이 모두가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많은 변천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는 마음 한량없이 기쁘고 대견스럽다.



축제 행사 내내 계속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지난 10월 중순, 15회 (1961년도 졸업) 동기들과 가족들이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에서 모였다.

첫날의 기념식은 모교 대강당에서 재미 동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한 94명과 임정기 학장, 박용현 모교 동창회 회장 재위를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그리고 뜻있게 거행되었다.

正裝하고 기념식에 당도한 각 사람에게, 강당 입구 로비에서는 이름표와 카네이션을 후배 자원 봉사자들이 일일이 옷선에 달아 주었다.

그 순간, "이 얼마만인가, 20대 초반의 우리들이 바로 여기서 서성거리며 의학도의 기초를 닦았던 때가? 모두들 먼 인생 여정을 지내고, 상징적인 종착역 중의 하나에 이제 도착하는구나!" 하는 향수와 잔잔한 설렘이 일었다.

식장에 입장하는 복도에서, 반가운 웃음과 악수와 인사는, "너,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 아니냐?", "야, 오랜 만이다. 너 많이 변했구나.", 혹은 "넌 전혀 안변했어!" 하는 탄성 등으로 이어져, 기념식 내내, 장내의 분위기는 상기되어 있었다. 나이가 나는 동기들은, 우리들이 지내온 세월이 아주 길었구나 하고 느끼게 했지만, 한편 반가운 옛 모습과 童顏을 꽤 잘 지켜온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학장의 환영사와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우리 동기회를 대표한 박승균 교수(재미, 정신과)의 "金祝祭를 맞는 感激" 제하의 기념사가 있었다.

완숙한 자세와 뛰어난 언변으로, 그는 기념사를 통해, 6.25 와 4.19 전후의 격동기를 경험한 15회 동창들의 특출한 행적과, 노력과 결속력을 구구절절이 재음미했으며, 참석한 동기들에게 15회 동창으로서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번 고조시켜 주었다.

이어서 15회 동기회원으로 부터 모은 성금을 모교와 모교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각각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회백 동문은 따로 모교 발전기금으로 일금 일만 달러를 임 학장에게 손수 전달하였다.

기념식 순서에 따라, 심영보 동기회장과 편집위원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15회 동창생들의 7 번째 문집 (자랑스러운 금축제) 네 권을 모교 학장실, 도서관 그리고 모교 동창회에 증정하였다.

기념식이 끝난 직후, 학생회관 1층 강의실 입구에서, 우리 동기들의 자담인 肅伯 又賢 金眞浩 교수作 시계탑의 겨울 증정 제막식이 있었다. 그림은 80호의 대형 유화로, 2학년 강의실 출입문 상단에 현수되었는데, 이 제막식에는 김진호 교수 자신과 임 학장을 비롯해 최 부학장, 한미동창회 임원과 관심회원들, 그리고 몇몇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모교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감탄의 눈길을 끌 그 그림 속의 시계탑은 영롱한 후광과 같은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이는 긴 세월을 버티며 시간을 가능케 한 하나의 시계탑일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든 동문들의 가슴에 각인된 영원한 긍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합춘회관 3층의 가천홀에서 [제9회 합춘미술전] 출품 축하회가 있었다. 미술전에 출품한 강창욱, 김진호, 서휘열, 안종근, 정두현, 그리고 주홍재 동문들은 관람자들을 위해 각자의 작품에 대한 "미니 해설"을 폈다. 그러자 동기회를 대표해서 조일균과 손기용은 미술전에 출품한 동기 "예술가"들 각각에게 기념품과 축하패를 증

정하였다. 곧 이어, 대학병원 서편에 지난 3월에 신축 개원한 서울대학교 癌病院을 순람하며, 이렇듯 훌륭한 병원을 건립한 후배들의 노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암병원에서는 건물 6층 [하늘 공원의 전망대에서 창경궁을 조망하면서, "나는 서울의대 동문으로서, 모교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소할 기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 중 22명은 처음의 3박 4일 일정만을 끝내고 귀경했지만 3분의 2가 넘는 인원인 49명은 6박 7일의 전 코스를 맘껏 즐기며 무리없이 소화했다.

이 글에서, 나는 이번의 [내 나라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만을 간추려 간단

## 자랑스러운 金祝祭에 다녀와서

이 한 수 (61, 대뉴욕)



와 한국의학의 발전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 했던가?" 하며 씩씩한 자문자답을 해보았다.

스케줄에 따라 우리들은 대형 버스 2 대로, 기념 만찬장 (서울시청 앞, 호텔 프레지던트)으로 이동, 31층 모차르트 홀에 다시 모였다.

사회자 김진호 선생이, 작고한 31명의 동창생들을 위한 묵념을 제청하니 장내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유명을 달리한 그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동시에 내 자신의 실존과 인생 현주소를 다시 묵묵히 점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형용하기 어려운 경외감을 느꼈다.

다음으로는 이 금축제의 계획을 주도하고 시종 빈틈없이 추진해 온, 南齋 심영보 회장의 환영인사와, 재미 동창회 회장(筆者)의 흥겨운 인사가 있었다.

이 인사의 말미에, 미국 측 동창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 온 감사패를 심회장에게 전달하였다. 감사패 증정과 아울러 나는 남재 심영보 의 또 다른 雅號를, 諸葛亮의 이름 亮을 따서, 15회의 제갈량이라는 뜻인 [五亮]으로 함이 어떠냐고 제의하기도 했다.

지삼봉과 이재승 동문들의 축사에 이어, 이은경 씨(Mrs. 이동해)의 피아노 반주로 김문자 씨(Mrs. 최 길수)의 우아한 독창 Hendel의 'Largo' 와 김연준의 '청산에 살으리랴다' 는 기념 만찬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고, 우리들의 감정을 잔잔하게 하는 듯하였다.

동창들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사진들을 모아 엮은 짧은 동영상 '자랑스러운 금축제' (10 분간 상영)를 관람한 후, 조두영 박사의 만세삼창 건배 제의에 좌중은 폭소로 화답하며 축배를 기울였다.

화기에애하게 진행된 만찬은, 이정자 씨(Mrs. 정철룡)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일동의 교가합창과 우리의 同期會歌 박인희 곡 [모닥불] 제창으로 끝났다.

기념식 다음 날부터 동기회 축제준비위원들과 하나여행사가 맞춤으로 기획한 [내 나라 여행]이 시작되었다.

남해안과 동부권 방문을 6박 7일에 하는 코스로, 우리 일행 71명이 우등 버스 3 대에 분승해서 출발하였다. 여행 중의 버스좌석은 세 대를 통틀어 매일 아침, 부인들이 제비를 뽑아 무작위로 결정하였기에 모두 보다 많은

히 기술하고자 한다.

처음 방문지인 경기도 화성 KIA자동차 공장 견학은 매우 흥미로웠다. 관람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된 깔끔한 강당은 우리 일행을 수용하고도 많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약 15 분간 슬라이드 쇼로 차 제조, 판매과정 및 통계, 공장운영, KIA 회사의 약력 등을 여자 직원 한사람이 우리들에게 視聽하게 한 다음 공장 내부로 우리들을 안내했다.

차 제조 과정의 상당 부분이 로버트에 의해 치러지고 있었다. 차는 매 30초 마다 완성되어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는 터널을 통해 공장 옆 하이웨이를 가로 건너질러, 차 500-700대를 수용하는 대형 화물선에, 5-10cm 간격으로 일사불란하게 그 완성품들을 적재한다고 했다. 먼지 방지 필요성 때문에 차체 페인트 과정은 방문객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기타의 과정은 1-3미터 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공장 내부는 밝고 깨끗했다. 공장 기술자들은 우리들을 의식할 사이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들 있었다. 지금은 현대그룹이 KIA를 경영하고 있으며 現代車와 KIA車 엔진은 동일하다고 했다. 첨단 기술을 대거 동원한, 참으로 거대하고도 훌륭한 자동차 공장이었다.

光州 광역시의 아파트단지들을 경탄의 눈으로 멀리 건너다보며 흑두부정식 점심식사를 한 후,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보성 고인돌공원(支石墓公園)을 둘러봤다.

순천灣의 유명한 日沒은 못 봤지만 석양에 비친 아름다운 순천만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었다.

순천 松廣寺에 들렀다. 그 절에 대한 많은 사연이 소개되었지만, 작년에 열반한 法汀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평생 無所有를 설법했던 스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줄여, 壽衣는 말고 승복 입은 채 茶毘(다비: 불교에서의 火葬) 해 달라. 저승에 가지 내 말의 빛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니 나 떠난 후 더 이상 내 책은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그의 다비식이 거행되었던 사찰이기도 하다.

순천 다음에 간 곳은 여수. 여수의 곳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족적이 있었다. 장군이 집무하던 전라좌수영 진남관(鎭南館)은 여러 번 보수되었던 단층 목조 건물로, 진남관이란 이름에는 남쪽의 왜구들을 鎭壓하고 南海域 일대를 평정한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일제 강점 때에는, 목조 건물이라 일본인들이 다른 건물들처럼 쉽게 파괴할 수도 있었으나, 일본 문화를 조선에 투입시키는 방편으로, 여수 중학교, 야간 상업중학교로 쓰기에 보존이 되었고, 지금은 국보 304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관전과 함께 몇 안 되는 큰 목조건물 중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탑승해 보았는데, 케이블카가 닿는 미륵산 정상에서 보면, 통영항의 바다 경치는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섬들과 푸른 해안선 때문에 동양의 나폴리라 불린다고도 하니, 가히 그럴 만하구나 하고 느꼈다. 또 미륵산 정상에서는 한산대첩이 있었던 곳을 조망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海路이나, 400여 년 전 수 많은 海戰 亡靈들이 고통과 애환을 안고 水葬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여행 중 들렀던 호텔들이 모두 5성급 이상이어서 그랬겠지만, 모든 호텔들은 우리들의 탄성을 받을 만큼, 정교하면서도 웅장하고, 편리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음식도 명성에 걸맞게 전혀 손색없이 훌륭했다.

巨濟市의 Hotel C Place에서 16일 아침, 버스로 막 출발하려는데, 버스 3대 옆으로, 호텔 남녀 직원 십여 명이, 흑백 유니폼을 입고, 일 열로 서서 손을 흔들며 미소로 우리들을 전송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황송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 씩씩이와 그들 특유의 여유가 돋보였고, 결국 우리들의 기분은 더 상쾌해 졌고 우리도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답례하며 사진도 찍었다.

거제시에서 또 하나의 해안절경을 신선대(神仙臺)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후, 소매물도(小每勿島) 유람선을 타고 낭만적인 등대섬과 남해의 풍광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다"는 감탄사가 연거푸 나왔다.

거제의 6.25 한국전쟁 포로수용소 기념공원은 많은 회원들이 이미 전에 방문한 곳이라 이번 여행 계획에도 없고 해서 들리지 않고, 부산행 거가대교(巨加大橋) 길에 올랐다.

이 거대한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에서 시작, 바다 위의 10여리를 가덕도 거점으로 거치고 나머지 근 10리에 해당하는 해저 침매터널을 통과하면 부산 강서구 천가동에 당도한다.

6년간의 공사 끝에 작년(2010) 12월 14일에 개통되었는데 대교 건축 세계 기록 5관왕이라 한다. 바다 위에 있는 그 길고 웅장한 사장교를 건축한 것도 경탄할 업적이지만, 바다 밑으로 그 많은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침매터널을 건축한 대한민국의 교량건축 중공업기술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 근교, 해운대의 수려한 모습이 잘 보이는 동백섬에 우리 일행이 도착한 것은 그곳의 [누리마루]를 가보기 위해서였다. 누리마루는 2005년 제 2차 세계 21개국의 정상 회담 (APEC) 이 열렸던 곳이다. <다음면에 계속>

당시의 회의장 내부와 21 개국 대표들의 좌석, 정상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대접했던 음식의 실물 크기 모형, 3 층 입구의 진주 자개 예술품 등이 일반에게 전시되어 있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있고, 기둥과 창문들은 상하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윗부분이 밖으로 더 기우러져 나와 있어, 거대한 水晶 유리 蠶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건축물이었다. 한국인들의 첨단 건축술과 세계 정치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실감케 해주는 훌륭한 방문지였다.

日程 제4일엔 경남 울산, 세계 제 1위의 조선소 현대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중공업을 견학하였다. 故 鄭周永 氏 생애 후반 40년에 이룩한 거대한 중공업단지(울산의 거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듯 했다.

승객 900명과 승용차 700대를 운반하는 Ro-Pax, 초대형 유조선과 천연가스운반선들, 32만 톤급 광석운반선 뿐 아니라, 이지스(Aegis) 군함과 잠수함도 구축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1만 7천명의 현대중공업 직원이 하루에 필요한 음식의 규모는, 소 50마리 (다른 고기로 식단을 바꾼 닭은 돼지 75마리, 여름에 삼계탕을 마련할 때에는 닭 1500마리로, 울산 일대의 닭은 며칠 내에 동이 난다.), 그리고 쌀 1500 말이라고 한다. 직원들의 식당은 울산시 40여개 초소에 산재해 있다.

정주영 씨에 대한 일화, 어록, 傳記, 창업 시기부터 후년의 사업 경영에 얽힌 독창적인 문제해결 기록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기록은 후세들에게 큰 교훈과 생애 대한 용기를 줄 것이라 믿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UNESCO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에 갔었다. 입진왜란 때 타버렸다가 계속 원형 복구되어 국보 7가지를 간직한 대사찰이다. 불교 신도들이, 불상 앞에서 스님과 함께, 염불, 기도, 참배, 참선 하는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주를 기점으로, 남해안 4일 방문 팀은 버스 1 대로 귀경하고 나머지는 동해안 여행을 계속했다.

신라시대 왕족의 23基 왕릉이 모여 있는 대능원(大陵苑)을 거쳐, 책에서만 보던 신라 선덕여왕 대에 건립된 첨성대(瞻星臺)를 보았다.

이태리 피사의 사탑보다는 작은 角度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1400년 이상을 의연히 버틴 그 자태는 경이로웠다. 한국 고고학자들 간에는 그 첨성대의 용도에 대한 많은 연구와 異見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들의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 경주 崔富者집 본채 큰 대문은 잠겨 있었다.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대문 틈으로 안채와 마당을 드러다 보는 일행들도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옛 사랑채, '요석궁'에서 한정식 저녁 식사를 하며, 12 대에 걸친 최부자집의 Noblesse Oblige에 얽힌 여러 사연들, 최부자집의 六然家訓과 또 살림 실행 지침 여섯 가지도 재 음미해보면서, 그토록 오래 富를 대대로 계승했던 저들의 지혜와 용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동행하는 동기들과 가족들 일행은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안내인에게 열심히 질문하면서 발걸음도 빠르게 또 가볍게 잘 이동했다. 나름대로 모두 평소에 여러 가지로 체력 단련을 잘 해서인가?

제5일에는 안동, 단양, 영월, 정선, 평창 등지를 방문했는데, 안동 하회(河回)마을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한국인 영화배우로, 한국 연속 드라마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가수로 인기가 높은 柳時元의 고향이며, 조선시대 大 유학자들 (柳雲龍, 柳成龍 선생 형제, 柳世鳴 都事 등)이 태어난 곳이다.

풍산(豊山) 柳씨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集姓村)으로 한국 전통 가옥과 풍습이 잘 보존된 곳이다. 그래서 13년 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세계에서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찾던 중 하회마을을 한국 전통마을로 지목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하회에 들어서면, Queens Road 라는 길 표지도 있고 여왕방문기념 전시관이 있다. 이 깊은 한국 시골마을에서, 한국식 진수성찬 앞에 만면 희색을

띠 영국여왕의 대형 사진과 그의 영국 수행원들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며 갑자기 地球도 地球村으로 재해석해야겠구나 싶었다. 河回라는 이름은 낙동강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S 字 형으로 마을을 감싸고 도는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회마을에서도 잘 살던 집 주인들은, 경주 최부자 처럼, Noblesse Oblige 를 여러 모로 실천했다 한다. 어느 해에 낙동강 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때, 하회마을의 한 부자는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적재했던 목재 전부를 강에 투입시켜 익사 직전의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한다.

과객들은 후하게 대접했다. 노자 돈이 떨어진 가난한 선비들이 후의를 베푼 집을 떠날 때, 대문 밖 벽에 뚫려 있는, 어른의 손이 경우 들어 갈만한 크기의 둥근 틈새에서 엽전 한두 닢을 꺼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습우화에서, 입이 좁은 그릇 속의 개업나무 열매 (Filbert) 를 한주먹이나 거머쥔 아이가 손을 뺄 수 없어 울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슬기로운 노인이, "권 것을 우만 가지고 손을 빼 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인도에서 원숭이들을 잡기 위해, 開口가 협소하고 무거운 질그릇에 땅콩을 넣고 원숭이들을 유인해, 욕심껏 움켜쥔 주먹이 무거운 그릇에서 안 빠져나와 잘 뺄 수 없어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힌다는 얘기와도 상통한다. 우리도 주먹을 좀 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端宗 유배지에서 500년 전에 그가 거닐던 숲길을 걸어보았다. 어린 단종이 즐겨 앉곤 했던 소나무, 방향하며 서북쪽에 두고 온 궁궐을 그리며 바라보던 곳 등, 왕손의 슬픈 운명이 스쳐간 이곳저곳을 거닐어 보았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지명된 평창의 이미 개설된 ski jump대를 보았다. 이 크지 않은 평창이 국제동계올림픽을 치른 후에 그 많은 시설과 선수촌 건물을 어떻게 뒷수습할 것인가 하고 안내인에게 물으니, 해당 당국이 그 사항을 아직도 연구 검토 중이라 한다.

다음 날은 강릉에서 여러 곳을 관람했다. 흥길동 저자 허균과 26세에 요절한 그의 누님 女流詩人 허난설헌(許蘭雪軒)기념관광원, 申師任堂의 친정 즉 李栗谷 선생 생가 烏竹軒, 등.

양양 솔비치 리조트호텔에서 훌륭한 buffet 조반을 마치고 大火災 후 복건된 洛山寺의 넓은 지경을 답사하면서, 언덕 정상에 높이 서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보고 紅蓮庵에 가 보았다. 의상대사가 좌선 7일 째 되는 날, 바다 속에서 흥련이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나 대사에게 법열을 주었다는 전설로 흥련암 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했다. 한국 4대 觀音聖地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많은 불교도들이 불공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 중에서도 몇몇의 불도들이 신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 참배하는 모습이 보였다.

관동 팔경의 하나라고 하는 청간정(淸澗亭; 한국유형문화재 32호)을 거쳐 화진포에 도달하니 이승만별장과 '화진포의 성(속칭 김일성별장)' 이 있었다. 화진포의 성에는 한국전쟁 이전 김일성 일가가 가끔씩 와서 쉬었다 가곤 했단다. 거기엔 5-6세로 보이는 김정일을 포함한 김일성 일가의 가족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건물에서 조금 북 쪽에 있는 이승만 별장에는 이박사와 부인 Franziska Donner여사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실물 대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고, 이박사의

친필 편지(미국 유학 중에 조선에 있는 부친에게 쓴), 붓글씨, 많이 닳아서 실오라기가 금방 끊길 것 같은 Franziska 여사의 낡은 장갑 등과 2차 대전 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한국전쟁, 그 후 자유당 정권 시대의 역사 기록이 전시 되어 있었다.

근대 한국 역사를 잘 모르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의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史實을 더 보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 시절의 이승만 박사는 아주 험담했고 영부인도 미인이었다. 이박사의 붓글씨는 매우 훌륭해 보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고성에서였던가, 동치미 막국수와 명태 식혜보쌈 점심식사를 하는 중, 그 날(10월 20일)이 이회백 동문의 77회 생일이어서, 그를 축하하며 그와 모두의 건강을 아울러 빌었다. 이회백 부부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동동주를 모두에게 대접했고, 10년 후에는 '金剛祝祭' 이름 하에 모이자, 그 전에 남북이 통일될테니 금강산에서 재회하자, 함흥식혜를 함흥에서 먹도록 하자며 최상의 희망사항들을 마음껏 토로하였다.

첫날의 기념식 후에 호텔 프레지던트에서 있었던 만찬을 포함해서 모두 네 번의 만찬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덕담과 농담과 노래 등으로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 동기 중에 출중한 가수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김윤경, 이준우, 황현상, 박승균, 조일균 등은 좀 늦었지만 남성 합창단을 하나 조직하는 것이 어떨지? 그 외에도 Mrs. 손기용, Mrs. 김영철, Mrs. 최길수 제씨들의 노래 솜씨는 특출했다.

늘 그랬듯이 우리들의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하는 최공창, 김진호의 해학은 아주 높은 段數였고, 청중들 중에는 그들의 joke를 하나라도 빠질세라 노트에 적는 열성 joke 공부파도 있었다.

최 공창은 좌중을 한참 요절 폭소하게 만든 후 계속 말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요즘 한국 연속극 좀 보십니까? 그 왜, 연속극에서는, 앞으로 자기 애인이나 남편이 될 법한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동창 부인들도 내일부터 남편을 여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시다!"

어떤 부인은 공창의 말이 끝나자 당장 남편 호칭을 오빠라고 크게 불러서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마치 어떤 medical convention 이나 symposium에 참석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의학 여러 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경험담이 쏟아지는가 하면 부인들도 서슴없이 마이크를 잡고 제각기 생각을 피력했다.

### 농담 골목

강도가 삼점 주인에게 붉은 액체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이면서, "이 속에 AIDS 환자의 혈액이 들어 있다. 네가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바늘로 너를 찌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삼점 주인이 태연스럽게 대답하기를 "찌르려면 찌러라. 나는 이미 콘돔을 끼고 있으니 AIDS에 걸릴 염려가 없다." (면)

누가 콘돔을 파는 삼점 주인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의 미누라가 임신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면)

어떤 남자가 아내와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좋은 그는 웃을 갈아입는 아내를 살피시 안으며 말했다.

남편: 오늘 보니 더 아름답군! 그리고 그 브래지어 아주 섹시한데... 아내: 그래요? 이거 당신 차 뒷좌석에서 주운거예요. (이덕승)

잔소리가 심한 아내가 있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졸고 있는데 아내: 여보, 일요일이라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꽃밭에 물이라도 줘요.

남편이 소파에서 부스스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남편: 여보, 비가 오는데... 아내: 그럼 비웃 입고 나가면 되잖아요!

인삼은 6년 근일 때 캐는 것이 좋은데,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좋을까요? 보는 즉시. (김세-)

버스 안에서, 어떤 부인은, "나 한 마디만 말하겠어요. 나, 시집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선언해서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양양 솔비치 리조트호텔에서 연어 정식으로 만찬 중, 내년 비주 동기회 회장으로 김영철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김영철은 차기회장직을 즉각 수락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일장 연설로 선언했고 모두의 호응을 받았다.

"우등 버스" 좌석은 아주 여유로웠다. 안내원들은 전문 지식이 풍부했고 그 중 한사람은 대학에서 史學을 전공한 박사가였다.

즐거운 공식 여행 6박 7일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방문하여 과거 40-50년 간에 성장한 세계 수준의 거대한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위용을 듣고 보았다. 오후에는 용산 이촌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정동극장에서 춘향전의 전통공연(울동)무대 [미소(美笑) 2011]을 감탄하며 관람했다.

나는 그 후 이를 동안, 개인 친척 방문 스케줄이 있어서, 나머지 문화탐방 행사에 참석 못했지만, 끝까지 참여했던 동기들의 말을 듣건대, 北村 한옥마을, 경복궁, 명동예술극장 연극공연관람, 또 이어서 最終日의 철원 안보관광 1日여행은 모두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다고 했다.

이번 금축제는 나 자신과 동기들 모두에게, 이를 그대로, 졸업 50주년 축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었고, 동기들이 재회의 화포를 정답게 풀 수 있었던 좋은,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조국의 생활 이모저모와 큰 도시들의 외곽에서 숨 쉬는 전통의 고장들을 체감할 기회를 준, 오래 두고 추억될 훌륭한 행사였다. 한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동기들을 생각하니 매우 아쉬웠다.

행사 계획을 더 완벽하게 세우려고, 미리 현지답사를 했을 뿐더러 여행 내내 세 버스의 반장노릇을 계속 하면서, 동창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돌봐 주었고, 특별히 문화탐방행사 때에는, 주로 미국에서 방문한 동기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 쪽 준비위원들 (김진호, 이재홍, 조일균, 주홍재)과 十五 南齋 심영보 회장에게 감사한다.

모두들 5년 후엔 미국에서, 10년 후에는 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재 다짐하며 기원하였고, 그때까지 일상생활에서 매일 충실할 것을 默言으로 약속들 하면서, 한국의 동기들은 사랑하는 가정으로, 在美동기들은 미국에 있는 각자의 제2고향을 향해 歸路에 올랐다.



첫째 날

제 21차 졸업 4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감개무량하게 진행되었다. 첫날 하나둘씩 모교 본관에 있는 강당으로 모여들어 인정기 학장, 박용현 동창회장들로부터 애뜻한 환영과 정성어린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정명희 동창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김성환 미주동창회장의 답사 및 학교에 2천5백만원, 동창회에 천만원을 전하는 등 공식행사를 가졌는데, 아울러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국내에서 정명희 동문, 미국에서 배성호 동문이 지명되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40여년 전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암센터 등을 돌아본 후 남산을 한 바퀴 돌아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앰버서더 호텔에서 만찬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산지사방에서 물려온 약 80명의 71년도 졸업생들과 어부인들이 깔끔한 중식요리에 곁들여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푼 후, 안효섭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재무보고가 있었고 차기회장은 만장일치로 윤용수 동문이, 미국 지부장은 김창구 동문이 맡게 되었다.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한 연분인데,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보던 "공포의 전당" 대강당은 현대식으로 말끔히 단장돼 있었고 암 병원의 옥상에 만들어진 정원에서 훤히 보이는 창경원은 그 옛날의 참덕궁으로 복고되어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들도 씩씩하고 품위 있게 자라나서 서울시민들의 긍지를 되찾아 주었고 아담한 앰버서더 호텔의 연회장은 우리같이 조촐한 만찬장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우리 동기들은 젊은 모두 중후한 노인사로 변해 있었으나 마음만은 40년 전 그대로, 금방 "야, 자" 해 가면서 어린애들같이 농치며 장난치는 개구쟁이들로 되돌아갔다. 친구가 왜 좋은가 했더니 서로 흉허물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의기투합해서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을 이십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친할수록 편하고 편할수록 친하다.

둘째 날

졸업 40주년 기념여행은 원래 일본 일주를 하기로 했으나 작년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조국일주로 바뀌었는데 여정은 하나 투어에서 주관했다. 일정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남한의 서반 부를 도는 "서편제"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경상, 강원도를 둘러보는 "동편제"로 나누어 저서, 고고한 "서반"에는 한국에서 김용식, 김인구, 정명희 동문부부와 안효섭 동문(부여에서 회군)이, 미국에서 김광식, 김창구, 배성호, 오동환, 장문석, 하준영 동문 부부와 이원택 동문이 참석했고, 융감한 "동반"은 한국에서 김영태, 민양기, 유세화, 장기현, 정규병 부부와 조세현과 이승희 여사는 홀로 합류했으며 문무를 겸전한 "동서양반"은 미국에서 은 강태수, 김성환, 김영철, 김일영, 오상현, 조병선, 최영철, 황동하 부부가 끝까지 버텼다. (김용식, 고기영, 윤기철 부부는 연로하여 행사만 참석하고 여행은 같이 못감, 최근에 금의환향한 황수택 부부는 막판에 합류)

첫 행선지는 백제의 고도 부여로,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백마강 유람선 관광이 있었는데 금강의 일부인 백마강은 4대강 개발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제법 불어 있었고 삼천궁녀나 의자왕에 대한 역사는 많이 왜곡되었다고 한다. 점심으로는 커다란 연잎에 싸서 잡곡을 넣고 찐 연잎밥을 맛보았는데 부여의 특산물인 연

근은 건성 먹으면 무미 무취하지만 천천히 음미해보면 은은한 "연향"이 돌기 때문에 자극성을 피하는 스님들이 즐겨 드셨다고 한다.

오후에는 설악산과 더불어 한국단풍 관광의 명소인 정음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이동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바지런한 사람들은 발로

은 많이 먹었으니 가끔 "별식"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진대, 공개적으로 불평을 했다가는 아직도 팔팔한 싸모님들한테 "별식 좋아하다가 체하면 약도 없다."고 지청구를 들을 것 같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 수 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내장산 국립 공원내에

# 친구여, 산천이여

이 원 택 (71, 남가주)



걸어서 내장사를 둘러보고 내려왔다. 시기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이르다고 했으나 내장산 입구에 심어놓은 단풍나무는 그런대로 바줄만 했고 황갈색과 적홍색으로 변한 나무숲을 거닐면서 우리가 벌써 단풍이 들 나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단풍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또 낮에는 해가 따뜻해야 붉게 물든다고 한다. 우리 서울의대 동기들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화끈하게 일하고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술을 베풀었으니 아마도 모두들 현란한 단풍잎을 맺어줄 것이다.

고국의 산하는 정말로 아름답다. 전국토가 국립공원이고 모든 자원이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다. 참 잘 다듬어져 있다. 특히 가을의 날씨는 약간 쌀쌀르 해 가지고 상쾌한 맛을 더해 주며 천고마비라 모든 것이 높고 맑고 풍요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은행나무 잎새들은 샛노란 색깔로 물들었고 군데군데 자라난 감나무 가지에는 잎새는 다 떨어지고 주황색의 팽감들이 울망졸망 불어 있었으며 아직도 추수가 안 되어 반쯤 남아있는 벼들로 들어찬 황금밭이야말로 금수강산이란 말에 일말의 손색이 없었다.

어느새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 도달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황금시기가 아닌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관광지를 돌아보며 다른 친구들 얘기, 자식손자 얘기, 노후대책 얘기, 음담패설들을 늘어놓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 우리를 인솔한 가이드는 각자가 다 알아서 챙기고 지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로 따라 다녔으니 가이드 팁을 따로 줄 필요가 없었다.

저녁식사는 산채정식이라고 해서 나는 삼신산골에서 나온 산채들로 밥을 비벼 먹기를 기대했으나 산나물은 별로 없고 잡다한 밑반찬만 늘어놓아 실망이 컸다. 이 나이에 이제는 양보 다 질이라고, 그리고 그동안 "정식"

서는 제일 낫다는 무궁화 세 개짜리 백양관광호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는 침대방과 온돌방의 객실이 반반씩이라 숫자가 적은 한국동기들이 양보해서 온돌방을 쓰기로 하고 미국동기중에 온돌방을 쓸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가 결국은 마음 약한 강태수, 김성환, 배성호, 장문석, 오동환 부부와 짝이 없는 이원택이 완전히 타의에 의해 온돌방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마도 온돌방바닥을 빙빙 돌다보면 무르팍이 까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온돌방의 객실은 삭막했으나 장판이 따뜻한데다가 산뜻한 명주 비단 이부자리는 아주 감축이 좋아서 썰렁한 침대에서 깔렁한(실례!) 마누라를 끼고 자는 것 보다 한결 "불임성"이 좋았다.

일행 중에 끼가 있는 분들은 가라오케까지 다녀왔는데, 김영철의 두 자리 숫자 "백마강" 김광식의 세 자리 숫자 "서울의 찬가" 그리고 김용식 부인의 "네 자리 숫자" 최신가요가 인기였었다고 한다.

셋째날

일정을 30분 담겨서 백양사도 관광했는데 도매기 시장같은 내장사에 비해 호젓하고 기품이 있어서 좋았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와 갈참나무 산책로는 네티즌이 추천한 한국에서 가장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곧 담양으로 이동해서 대나무숲 "죽립원" 낙향한 선비들의 소굴이었던 "소세원"을 둘러보고 점심은 촌가에서 순 토종닭으로 만든 닭백숙을 먹었는데 어찌나 맛이 있던지 너무 많이 먹어서 김일영 부인은 나중에 배탈까지 났다.

오후에는 대처승 천태종의 본산 조계산 선암사를 가 봤는데 이곳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주한 분들의 이름을 적은 수천 개의 연등을 길 따라가며 입구에서부터 대웅전 앞마당까지 치렁치렁 걸어 놓아 마치 미국의 중고차 판매장 같아서 영 '눈엣가시' 였다. 하

긴, 스님들도 장삼을 걸치고 운전을 하고 손에는 염주대신에 스마트 폰을 쥐고 다니는 세상이긴 하지만서도 말이다.

선암사의 상단에는 500년 묵은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근처에는 2-3백년짜리도 몇 그루 같이 있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십분지 일이라면 각각 50대와 2-30대의 여인에 비견할 만한데, 사진을 찍는 것을 보니 젊은 층들은 500년짜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 동기들은 하나같이 2-30대짜리 영계 매화를 껴안고 있었다.

이날 관광은 소설 '태백산맥'의 답사여행 같았다. 작가 조정래씨는 선암사에서 태어났고 지리산 자락, 조계산, 벌교, 섬진강 유역, 순천만 등이 모두 그 소설의 주요 무대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질 무렵에 본 '풍요했던 낙안고을'을 보존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이날 여행의 백미로서, 특히 서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초가집들이 우리 모두의 향수를 달래주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의 초가지붕같이 소박하고 정취가 우러나는 건물을 본 적이 없다. 지붕 위로 올라간 박당굴에 두어 개 매어달린 조랑박을 볼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저녁은 남도 한정식이라고 해서 나는 주로 곰삭은 첫갈래가 나올 줄 알고 군침을 삼켰으나 순천에서 제법 뼈까반쩍한 식당에서 나온 '한정식'은 무슨 퓨전음식을 닮아서 감칠맛이 별로였었다. 정명희 동문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포도주 한 잔씩 걸치고 전남에서 세 개 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름도 요상한 무궁화 다섯 개짜리 에코그라드 호텔에 투숙했다. 내가 다닌 호텔 중에서 제일 샤워시설이 잘 되어있었으나 bath tub이 없어서 나같이 치질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영 썩병이었다. 한국에 나와 보니 새로 지은 호텔이나 오피스 텔 등에는 거의 샤워만 있고 욕조가 없는데 나는 아직도 목간통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물을 온몸에 끼얹어야지 개운한 걸 어쩌란 말인가.

넷째 날

아주 산뜻하게 차려진 뷔페식당에서 양식으로 푸짐하게 아침을 먹고 나서, 원래는 구례 화엄사도 일정에 있었지만 절 보기가 지겨워서 삼신산 썰개사만 둘러보았다. 이곳은 절 가는 통로를 따라 자라난 자작나무과의 서어나무들이 일품이었고 AD 887년에 신라의 3대 문장가 최치원이 쓴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그런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선암사에서는 변소를 "스뽕간"이라고 썼으나 여기서는 "해우소" (解憂所: 기생들한테 몸을 풀고 건네는 돈도 "해우채"라 했음)라고 했는데 고고한 스님들도 인간의 배설물은 될수록 멀리 했으며 생리적인 욕구를 푼다는 것이 큰 근심거리였던 모양이다.

오후에는 경남 통영(총무)으로 내려가서 우선 갑각류만 넣어서 비린내가 안나는 해물 탕으로 배를 채우고 한국에서 제일 길다는 2km짜리 케이بل 카로 한려수도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미륵산 정상에 올라 크고 작은 섬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경관이 이태리의 나폴리를 뺄질 정도로 빼어났다. 다시 통영 시내로 내려와서 문화공원에 떠 있는 모조 거북산을 내부까지 샅샅이 보고나서, 동쪽 벼랑의 사투리 '동피랑' 그림 골목을 올라가 보았는데, 브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La Boca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같은 감이 들었지만 그런대로 조촐하고 친진난만한 맛이 있었다.

저녁은 굴 요리 전문집에 가서 날 굴, 설은 굴, 익은 굴, 썩은 굴 그리고 우리 동기회의 (다음면에 계속)



# 축사

김혜자(Mrs. 황철 66, 북부뉴욕)

안녕하십니까, 저는 Mrs. 황 철입니 다.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또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준비 위원회의 여러분들이 졸업 45주년 겸 칠순 잔치 모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게 이런 축하하는 기회를 주신 것 제 일생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에 입학하셔서 이번 45주년 동창회까지 51년 이라는 세월을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친구로 지내 오신 여러분들이 계속 5년 마다 이런 모임을 주선해서 만나고 계신것 정말 장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남편들 덕분에 우리 마누라들도 여러 좋은 곳 구경도 잘 하고 유명하신 박사님들이고 가까이서 여행도 함께 하고 이런 때엔 우리가 정말 시집을 잘 온 것 같네요.

오늘도 Kona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골프장에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우리가 남편 잘 만나서 이런 곳에서 골프를 치니 정말 행복하다고 공이야 잘 맞건 안 맞건 무조건 행복했습니다.

1968년 12월 1일 서대문의 어느 다방에서 황철씨와 맞선을 보았는데, 그때 이미 신랑감은 대머리가 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등산에 재미가 들려 동국대학교 등반단원들을 따라 등산을 가려고 나서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을 막고 서서 오늘은 꼭 선을 봐야 한다고 못 나가게 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대머리가 시작된 사람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새침해 있었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마당밭 이승희 여사가 직접 중앙시장에 가서 떠온 각종 사시미에다 쇠주를 열병쯤 시켰는데, 나이 탓인지 술들을 많이 못해서 점이 많은 최영철과 이원택이 재고처리 하느라고 고생케나 했다.

오밤중에 거제 대교를 건너 섬의 동남쪽에 있는 외현에 도착해서 "Sea" palace가 아닌 "C" palace에 여장을 풀었는데, 호텔 이름이 "씨팔리스 (~less)"라니 이곳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여쩐지 모르겠다. 좌우간 한국에 오면 신식건물이나 지명은 외래어 투성인데 심지어 제주도에는 "더 마 파크(the 馬park: 말공원)"라는 곳도 있다. 그런데 그놈의 "씨팔리스" 호텔은 무드를 잡느라고 그랬겠지만 전등불이 너무 흐려서 책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자기 전에 책을 안 보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전등갓을 빼보려고 갖은 애를 써 봤지만 이년의 것이 불박이로 붙어있어서 영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곳에 오면 딱이나 치고 가라고 "심할래所"라고 명명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5) 다섯째 날

그때 신랑감이 절더러 "NMC에 근무 하신다지요? 저도 NMC에 근무 했었습니다" 하고 웃는데 웃는 얼굴과 입매가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어요. 어머, 저 사람이 웃을 땐 아주 귀엽네, 오늘 하루만 데이트 해 주지 한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등산을 갔었던들 오늘의 Mrs. 황은 없었을 것이고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평생 살며 저는 서울의대를 항상 들먹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갖은 일 힘든 일을 다 해내는 걸 볼 땐 아 당신이 이런 면이 있어서 서울의대를 나올 수 있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한편 Common sense가 전혀 없는 남편과 살며 제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당시 서울의대 나온 것 맞아? IQ 두 자리 숫자라도 이렇게는 안하겠 다." 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나 미국인 친구들에게는 내 남편이 나온 학교는 한국의 하버드의대라고 자랑을 합니다.

"서울의대 20회 동기 만세" 의 축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서: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질 때,  
비바람이 불 때  
울: 울타리 되어 평생 우리를  
보호 해 주신 당신들  
의: 의술을 베풀어 병든 사람  
고쳐주고 살려 내신 분들  
대: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당신들의  
영광이 이어지기를  
20: 20대에 가졌던 씩씩한 기상을  
계속 간직해  
화: 회갑 지나 칠순이 되었어도  
여전히 씩씩하시네.  
동: 동안이던 얼굴에 주름이  
잡혔어도  
가: 기품 있고 인자하신 모습들  
보기 좋으십니다.  
만: 만수무강 하시옵고  
세: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편안한 날 들이 되십시오.

호텔에서 사골우거지탕의 구수한 맛으로 지난밤 쏘주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나서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을 돌아 외도로 들어갔다. 해금강은 홍도나 울릉도의 바람에 비해 별로 빼어난 것도 없었지만 어떤 집념의 부부가 40년간 피땀 흘려 가꿔놓은 외도 Botanic은 흑산도 울릉도 제주도의 비슷비슷한 그것들보다 열배는 더 나왔다.

어떤 박사가 설계를 했다는 외도 식물원은 마치 "mini" 허스트 캐슬을 연상시켰는데, 이곳에는 50명의 정원사를 비롯해서 약 70명의 인부들이 매일 같이 주고(물) 갈고(밭) 뉘고(길) 뽑고 (풀) 자르고(나무) 한단다. 섬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관상수를 기르기 위해 배로 육지에서 물을 날라야 하므로 입장료를 8천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한창 때는 하루에 2만5천명이 찾아온다니 그리 밀지는 장사는 아닌가 보다.

역시 돈이 좋긴 좋은 모양으로 이곳에는 편백나무, 사철나무, 대나무, 향나무, 야자수, 종려나무, 선인장, "들어 오지 마세요" 나무 등등 온대와 아열

# 갑자기 겨울이 여기에

방준제 (70, 대뉴욕)

사무실을 나섰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전신이 싸늘해 졌다. 춥고 떨리기도 했다.

예상치도 못한 눈보라는 대기의 온도를 영하로 급강하 시킨 탓이다. 뛰다시피 차 안으로 뛰어 든 후 쳐다 본 온도계는 바깥 기온이 화씨 34도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시월의 20트림이지만 아직도 시월, 그리고 가을이다. 그런데 눈이 저토록 쏟아지다니 지구가 미쳤는가 생각해 봤다.

히터(heater)를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애잔한 색스폰 소리가 담긴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김기덕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의 장면들이 스쳐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또 올까? 상념에 잠겨 보았다. 삶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나? 자문에 빠져 보고, 친구가 언제 말 했던 "석양이 여명보다 더 아름답다" 했는데, 진짜 그런가 되 물어 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한이 서린 아쉬움이겠지, 스스로 결론짓고 있었다.

허드슨 강변도로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베라자노 다리 아래 힌터에 차를 멈췄다. 눈보라가 거기도 실 새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구가 미쳤나? 또 중얼 거렸다. 올봄 일본의 지진과 뒤따른 쓰나미 소식에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얼마 전엔 이 뉴욕에도 생각치도 못 했던 지진이 일어난 것을 사무실에서 흔들흔들 하며 체험도 해 보고.

작년 초 가을 퀸즈 식물원을 휩쓴 토네이도 광경이 머리를 스쳤다. 그

날 정각 오후 6시에 우리는 "코스모스의 밤"을 다 준비 해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 지고 회오리성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바깥에 차려 놓은 테이블이 날아가고 눈앞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10분 정도 그러더니 토네이도는 지나가고 우리는 행사를 그려져려 치렀지만 뉴욕시는 그 잠깐 사이에 혼돈에 빠졌다. 길거리에 쓰러진 나무들, 꼼짝도 못하는 차량들, 실새 없이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도시가 마비되어 버렸다고 알려 주고 있었다.

아, 시월의 폭설이라! 142년 만의 폭설이라 신문은 알려 주고 있었다. 300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기사는 알려 주고 있었다.

지구가 미쳤나 보다. 또 그렇게 중얼 거렸다. 자연 재해나 자연의 변덕을 우리 인간들이 여쭙겠는가, 순응하고, 극복하고, 또 일어서고, 내일의 태양을 믿고 또 걸어갈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나 저 군중들의 고향 소리-월 스트리트에서 시작하더니 전 세계 80개국으로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저 아우성 소리를 우리 어찌하냐?

서울에서는 50일만에 50년 정당사를 뒤집어 버렸다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람들은 시민 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구호가 생각난다. "야, 이 바보들아! 경제야, 경제! 모든 것이 경제야" 하던.

부라부라 전화를 했다. 업스테이트의 어느 산장에 점심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다. 마지막 정열을 태우며 불타고 있을 그 가을의 장관을 또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친구의 말, "석양이 여명 보다 더 아름답다"던 그 친구의 말을 떠나는 가을에게 물어 보고 싶었는데...

겨울이 싫다, 그 겨울보다도 더 싫은 것은 사람들의 핏발선 아우성이 더욱 싫다. 어찌겠는가? 싸늘한 한기에 움츠러들지라도 또 봄을 기다려 볼까?

대의 식물들이 아주 정교하고 운치 있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각 공원이라는 것도 있어서 한군데는 "올망졸망"한 어린이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한쪽은 "둥글둥글"한 여인들을 주제로 한 나체공원이 있었는데 여인들의 젖가슴은 하도 만져서 모두 맨질맨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유람선을 탈 때 배 이름을 쓴 명찰을 하나씩 주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관광객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밤이나 낮이나 남의 배를 타지 말라."는 뜻이란다. 우리 동기 중에 자기 배와 남의 배를 구별 못하는 친구는 이원택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배를 탈 때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 모두 앞쪽으로 가고 남자들은 거의 뒤쪽으로 가는데, 이는 배가 갈 때 전단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후미는 양옆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뱃멀미를 피하려면, 앉자리에서 상하운동에 익숙해진 싸모님들은 앞자리에, 좌우운동을 좋아하는 싸부님들은 뒷자리로 가는 일종의 "조건반사적 현상"인 모양이다.

서편제의 마무리 일정으로 작년 연말에 개봉된,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다는 뜻을 가진 "거가" 대교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8.2km나 되는 긴 다리의 부산쪽 3.7km는 해저로서 이는 폭이 26.5m가 되는 커다란 시멘트 관을 바닷물 속에 넣은 후 (침매공법) 양쪽으로 물을 빼어내고 왕복 사차선의 차길을 만들었다니, 우리 국민들이야 말로 구멍을 파거나(땅굴) 뚫거나(터널) 쑤셔 넣는데(도로관)는 도가 튼 사람들이다.

점심이 자갈치 시장의 한식뷔페라고 해서 나는 각종 생선구이가 있을 줄 알고 기대가 컸으나 해산물은 주꾸미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다만 예기치 않게 생선시장 바다에서 아주 고소한 깨죽을 맛볼 수 있어서 큰 불평은 하지 않았다.

원래는 동편제를 안가는 동기들은 모두 관광버스로 서울로 올라오기로 되었지만, 이원택이를 뺀 미국촌놈들이 KTX를 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통에 거금 2만5천원씩 더 들여서 초고속철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두 번째라 별 감동이 없었으나, 고속열차가 신나게 달릴 때 전광판에 나타나는 시속을 보고 "야! 300km가 넘었다."고 신나하는 오동환이랑 김창구를 보니 60이 넘어도 철딱서니가 없기는 어제나 이제나 매일반인 것이다.

좌우간 지난 40년 동안 형설의 공을 쌓아 의료의 각 분야에서 금자탑을 이루어 온 우리 동기들도 대견하지만 갖은 각고 끝에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중단 없는 전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늪늪늪 물드는 남편의 머리 빛깔을 보며 문득 저녁노을 같은 쓸쓸함이 느껴져 온다. 하지만 슬픔과 기쁨은 하나의 감성에서 생겨나 둘이 아닌 것처럼, 아쉬움의 끝자락에는 또 다른 새 시작이 있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한다.

깊어가는 가을여행은 동행한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붉고 노랗게 물들였다. 기다림으로, 만남의 기쁨으로, 나눔의 정겨움으로 마음들은 빨간 단풍잎이 되었다 노란 은행잎이 되며 바람결에 출렁거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이었던가. 온 천지의 화원이 계절 빛으로 물든 가을 수채화 속에서 단풍같이 붉게 물든 가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풍요로운 가을과 하나가 되는 축제였다. 칠박팔일 동안 모교를 방문하고 낯익은 어머니 땅의 흙냄새를 밟으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공을 잊은 채 황홀했었다. 서로의 지나온 삶을 되새기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뜻 깊은 외출이었다.

남편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사십 년이 지났으니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푸른 산이 변하듯 동창들의 검은 머리칼은 어느덧 진주 빛이 되고 얼굴은 주름으로 깊어졌다. 청빛 가슴에 품은 열정 하나로 거친 세상의 물결을 헤쳐 온 끝에 생긴 영롱한 진주, 팽팽히 감긴 바이올린 현 같았던 젊은 시절엔 오히려 여유가 없었을까. 얼굴 굵이굵이마다에 생긴 주름은 어느새 너그러운 이해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되어 이웃과의 힘든 세상마저도 그 길을 통해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풍요로운 길인가. 아픈 이나 삶에 지친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행로이다.

우리 일행은 첫날 한국과 미국의 졸업생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만찬회를 가졌고, 그리고 다음 날 서울을 출발해 꿈에도 그리던 뜻 깊은 여행을 떠났다. 앞에는 이원택 동문이 기행문을 썼고 필자는 통영에서부터 인상 깊은 곳을 적어 나갔다.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두 사람의 눈이 다름에 깊은 이해 있기를 바란다.

- 통영

일행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에 들렀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문득 왜구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되어 본다. 한없이 평화로운 주변의 섬들로 적을 유인한 뒤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쓸 줄 알았던 장군은 불세출의 대단한 전략가였다. 거제도나 한산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통영은 산과 바다와 해안도로가 하나가 되어 푸른 보자기 같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역사 속에 남았던 싸움의 흔적이나 장군의 충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는지 이국적인 바다 풍경이 더없이 평화롭다. 청빛 물빛은 예와 그대로인데 세월은 여울 치는 잔물결 따라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 외도

안개 뒤섞인 해풍에 몸을 문으며 외도 여행길에 오른다. 외도는 말 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정도(正道) 옆에 색다르게 나 있는 길,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워 보이는 섬은 이름 때문인지 깊은 인상으로 남는다. '외도'는 '내도' 옆에 다소곳이 몸을 물고서 보석 같은 푸른 바다에 싸여 막힌 곳 없이 사방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 부드러운 토파즈 빛 바다를 배경으로 입구에는 늘 푸른 소나무들이 섬을 열고 있다. 소나무는 날카로운 침엽수인데도 부드러운 모차르트 곡의 음률처럼 그 몸매들이 우아하게 다듬어져 있다. 상상의 나라에도 초대된 양 나무는 송이버섯 모양이었다가 커다란 코끼리로 변했다가 힘차게 하늘로 틀림 하는 용이 되며 끝없이

변신한다. 싱그러운 초록으로 단아하게 정리된 섬 주변은 태초의 몸짓으로 속삭이는 푸른 바다 물결까지 더해 더없이 화려하다. 그래서이리라, 동기 일행들은 사진들을 찍으려 여기저기에서 멋진 포즈를 잡는다. 섬은 아

#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을 마치고

김 영 애 (Mrs. 김성환 71, 남가주)

직도 의도를 세운 이의 꿈을 가슴에 얹고 새로운 상상의 날개를 바람결에 펼쳐며 자연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 거제도 의 섬들

햇볕이 쏟아지는 아침, 거제도에서 해금강으로 향하는 배에 일행은 몸을 실었다. 거제도도 남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거제도에서 출발해 초록 물결의 발자국들은 줄줄이 이어져 골짜기바위, 십자바위, 신랑바위, 부인바위, 코뿔소바위, 사자바위, 선녀바위를 차례로 지난다. 언제부터 바위들은 바다와 동거를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불여준 전설 같은 이름표를 달고 바위들은 망망한 바다에서 한없이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가슴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바다는 끝없는 과도와 잔물결의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질푸른 바다는 끝없이 흔들렸기에 오히려 깊은 내면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찰나도 쉬지 않는 바다는 우리네의 삶을 닮았다. 번뇌 같은 잔물결들이 수만 개의 자국을 내며 망망한 바다를 끝없이 표류하건만, 살아있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 게다.

- 십자바위

일행을 태운 배는 은물결 부서지는 해금강 십자바위에 닿았다. 태초부터 출렁이던 바닷물과 굳은 바위의 우정은 얼마나 깊었을까. 질푸른 바닷물은 십자바위 가운데에 하늘 문을 내어놓고는 쉬지 않고 넘나든다. 아마도 저렇게 단단한 바위조차 부드러운 바닷물에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출렁대는 물결 속에 배가 십자바위에 가까워지자 선장은 벌어진 바위 사이로 아찔하게 배를 밀어 넣는다. 경이로운과 함께 바위 옆의 일행은 출렁이는 푸른 물결이 되어 아름다운 십자바위를 넘실댄다. 어느새 하늘빛 물은 바위와 하나가 되고 일행은 바다의 한 부분이 되었다.

- 영주 부석사

부석사로 떠나는 날이다. 너른 언덕 길에는 가을로 물든 은행나무가 한창이다. 나무는 청빛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하다 기어코는 땅까지 온통 노랗게 물들여 버렸다. 쏟아지는 해가 나무를 비추자 잎들은 문득 바람에 필러이는 금빛 나비 떼로 변신한다. 마치 사십 년 만의 동창들의 해후를 축복이라도 하듯 나뭇잎들은 축제라도 펼치려나 보다.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변할 수 없는 끈끈한 학연, 동창들의 행복의 웃음이 은행잎 사이로 퍼지며 황금빛 선이 우정의 프리즘 광선으로 반짝인다.

일행은 가파르게 깎아지른 계단을 올라 부석사 대웅전에 닿았다. 아마도 셀 수 없는 번뇌의 계단을 올라야만 힘든 부처의 길에 도달할 수 있나 보다. 숨 가쁜 바람 따라 고개를 오르자 법당 안의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신다. 자신이 부처임을 모를 뿐 모든 이에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범부의 평범한 미소 속에 부처의 미소가 있을 것이다. 쉬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처

마 끝의 목어가 말없이 가르침을 전해준다.

- 단양팔경

단양 팔경의 물빛은 연두색 물감을 타 놓은 듯 청신하다. 살아 움직이는 영혼 같은 안개가 갈색 땅과 푸른 하

늘 사이를 가득 메워 버린다. 안개를 배경으로 이끼 앉은 검은 바위와 꽃꽂한 소나무가 선비의 기상을 드러내며 청록색 물과 함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낸다. 청산을 안고 흩어지는 흰 물살들을 보면 세파의 작은 걱정들은 어느새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우습하던 청산도 세월 따라 그 허리를 낮추는데 마음에 맞힌 그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 어머니 자연의 품 안에는 언제나 가르침이 담겨있다.



일행이 탄 배가 방향을 바꾸자 석회석으로 된 동굴이 멀리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뱃전을 찰랑대며 물소리를 토해내는 남한강을 따라 아기가 기하게 꾸며진 단양팔경의 단상들은 자연이 빚은 또 하나의 예술품이다. 깎아지른 바위와 초록빛 산과 에메랄드 물빛이 운치 있게 짜 맞춰진 절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먼 하늘과 손을 잡은 물 위의 기암괴석을 바라보며 애달픈 두향의 이야기를 듣는다. 단양군수 이황과 관기 두향의 사랑 이야기이다. 못다 이룬 사랑을 죽음으로 끝맺은 절절한 두향의 무덤, 매화를 사랑했던 두 사람은 매화 같은 의지로 눈보라치는 찬바람 속에서 매화꽃 사랑을 하였나 보다. 두향의 꿈을 수 없는 연민은 생(生)과 사(死)를 초월하였고 그 연정은 시공을 뛰어넘었다. 두향은 죽었지만 그녀의 혼은 들는 이의 가슴에서 애처롭게 피어난다. 못다 핀 사랑은 언제나 영혼의 미라로 사람들의 가슴에서 영원토록 보존되나 보다.

- 경주

경주 토함산에 자리 잡은 불국사는 현세의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사모의 정을 예술로 빚어낸 김대성의 걸작품이다. 동해의 햇살이 제일 먼저 와 닿는 석굴암, 불국사의 상징인 안양문, 범영루, 자하문과 돌 주주, 돌단계의 조화로운 풍경을 보며 옛 선인의 예술적 감각에 감탄한다. 절 마당에는 눈에 익은 석가탑, 다보탑이 세월의 풍상을 이기고 다정하게 서 있다. 신라인들은 어찌 그리도 돌을 잘 다루었는지... 석굴암의 기품 있는 부처며 우아하고 부드러운 십이면 관음보살상은 마치 밀가루를 반죽해 빚어 놓은 듯하다. 얇은 바람결에도 흔들릴 듯 한 관음보살 옷깃 사이의 손은 중생의 고뇌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다. 사면이 질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경주는 천년의 역사만큼이나 고고한 기품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사색하는 푸른 학같이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그 무엇이 경주에는 은은히 서려있다.

- 안동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풍산 류씨가 육백여 년 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집성촌이며, 와가와 초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선생이 살던 곳이다. 수령이 육백년이 된 삼신당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의 집들이 강을 향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마을 이름을 하회라고 한 것은 낙동강이 마을을 태극 형상으로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연화부수형의 명당으로 이미 조선 시대부터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일행은 류성룡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을 방문하고 삼신당의 느티나무를 둘러보았다. 나지막하게 다정한 울타리와 황톳길 길 그리고 가지런한 기와지붕을 둘러 일행 모두는 옛 조선 시대의 양반과 그 정경부인이 된 듯했다.

- 부석사 무량수전

진한 가을해 때문인지 부끄러운 가지에서 시작해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땅까지 붉게 물들인 단풍을 밟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오른다. 무량수전은 기둥이 특이한 배흘림 양식을 하고 있다. 둔탁한 기둥의 무게감을 줄여 보려고 선조들은 나무 윗부분을 특이하게 다듬었다. 고색이 창연한 단청은 세월만큼이나 빛이 바랬다. 기둥이 초라하게 벗겨졌음에도 가식이 없는 진실처럼 웬지 푸근하고 편안하다.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선다.

길을 걸으면 이름 모를 나무들은 여기저기에서 다른 빛으로 계절을 채색한다. 푸른 소나무와 해본 아홉마같이 여러 색의 옷을 한 몸에 걸친 주황빛 나무, 참한 갈매빛 나무, 빨간 단풍, 가을이면 할머니가 되는 백발의 갈대들이 바람결에 흔들린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길을 걷듯, 서로 다른 나무들도 삶의 길을 걷는다. 나무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 나뭇잎 색깔마다에 개성을 드러내는 나무들은 같은 길에 있지만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자신을 맡긴다. 가을은 서로 다른 자연의 동행 길을 볼 수 있기에 아름다운 것일까. 익어가는 가을 아래 여러 빛의 나무들은 화려한 수채화를 그리다가는 지우며, 겨울을 맞이하려고 비우는 연습을 한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여, 정음, 단양, 순천, 통영, 거제, 경주, 대구, 안동, 단양, 평창, 이천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서부에서 시작하여 남부를 걸쳐 동부까지 조선 팔도를 모두 섭렵한 것이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고 여행이라고 했던가. 의대 사십 주년 졸업생들은 푸른 동심 하나로 칠박팔일의 꿈의 인생을 같이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꿈이 어디 또 있을까. 삶의 찌꺼기 같은 잡티와 오점을 모두 삭제해 만든 한 장의 멋진 사진이라고나 할까. 피곤도 했지만 마냥 행복했던 동창 일행은 다시 만날 그 날을 다시 기약하며 정든 동지를 향해 길을 떠난다.

이번 여행에 참석하신 강태수, 김광식, 김일영, 김영철, 김창구, 배성호, 이원택, 오동환, 오상현, 장문석, 조병선, 최영철, 하준영, 황동하 님들과 그 사모님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신 김유식, 고기영, 온기철 님들과 그 사모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 한글과 영어

오태희 (64, 케네디컷)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는 자음과 모음이 26자이다. 또한 대문자와 소문자, 인쇄체, 필기체가 따로 있고 단어마다 발음기호가 따라 다닌다. 반대로 한글은 자음과 모음 모두 24자가 전부이며 한 가지 글자체 밖에 없어 영어보다 훨씬 간단하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국제화 시대의 컴퓨터 키보드 효능은 단연 세계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다.

각설하고, 자기 나라 말은 국어라 하고 다른 나라 말은 외국어라 부른다. 국어는 말을 먼저 배우고 외국어는 대개 글을 먼저 배우게 된다. 외국어는 필요에 따라서 배우고 반드시 배우지 않아도 된다. 국어는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어머니한테서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국어라고 한다. 한국인의 모국어는 한글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글은 국민학교에서, 영어는 중학에 들어가서 나는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문자의 한국식 발음과 뜻은 이때에 배우기 시작하여 한자훈용은 할 수 있지만 중국말은 할 줄 모른다.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웠고 프랑스어도 예과시절에 건드려 보았다. 라틴어는 대부분 의학용어의 바탕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배우는 척만 하여서 아는 것이 없다. 외국어를 배웠으면 적어도 배운 언어로 편지쯤은 쓸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손을 씻는다면서 손에 물만 칠하고 그만 둔 셈이다. 그러나 국어와 영어는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한국전란 중에 미군 병사가 군용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고 혼자 남아 도움이 필요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영어교사를 불러 왔다. 시골에서 보기 드문 구경꺼리가 생겼다. 한데, 트럭운전병과 영어교사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영어로 글을 써서 보이니 운전병이 글을 읽을 줄을 몰랐다. 길 잃은 병사보다 말 안 통하던 영어 선생님을 모두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 영어선생님 한테서 나는 영어를 배웠다. 그래도 그 시절 그 환경에서 잘 가르쳤다.

한글은 적어 놓은 대로 한 글자 한 발음이 원칙인데, 영어는 될 수 있으면 적어 놓은 대로 발음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간단한 단어도 '발음기호'가 따라 다니는 것이 특징이며 스펠링만 보고는 단어의 발음을 제대로

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에 영어 발음에 대한 강의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면 으레 따라 다니는 기호라 생각하고 발음의 중요성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소홀하게 지나쳤다. 단어의 뜻이 중요하지 발음은 한글처럼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 영어를 배워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본다.

나의 영어 알파벳과의 첫 대면은 국민학교 때이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유행하던 옛날에 나보다 먼저 읍내 중학에 진학한 두 살 많은 동네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ABCD... 미국 글자를 자기 집에서 정성스레 가르쳐 주었다. 영어가 그렇게 신기할 수 없었다. 책꽂이에서 형이 쓰던 일본시대 영어책을 펴들고 며칠 동안 친구와 함께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누어 연습에 연습을 하니 알파벳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나는 영어 할 줄 안다고 어머니 앞에서 품을 잡았다. 인쇄된 알파벳 이름을 차례대로 불러내려 갔다. 겨우 영어 두 줄의 알파벳 이름을 목에 힘을 쥐서 부르고 나니 숨이 찼다.

어머니께서, "나는 영어는 할 줄 모르지만 영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 뿐이구나. 그래, 무슨 뜻이나?"

"엄마, 명석이가 뜻은 아직 안 배웠데." 하고 둘러 대었다.

만일, 내가 요즈음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기러기 아빠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IT 국제화 시대에 한국에 앉아서 현지에 서처럼 영어배우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VD로, You tube로 보급하면 현지 영어수련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지난 날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발음을 소홀히 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나는 한글발음 기호를 만들어 영어발음을 대신 해 볼까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의 영어사전에는 단어의 발음기호는 물론 발음버튼까지 친절히 입력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언제나 단어의 발음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다.

결국으로, 자주 사용하는 영어단어의 한글 발음을 적어 보았다. 영어는 악센트만 제자리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온다.

- 오렌 주스 ( orange juice)
- 메에리카 (America)
- 마아크라시 (democracy)
- 피이나 (subpoena)
- 굿넛니 (good morning)
- 포스타피스 (post office)
- 쏘나 (sauna) x 싸우나
- 핏짜 (pizza) x 피자
- 비디오 (video) x비데오

# 의과대학 뒷마당에 낙엽들이

노용면 (55, 대뉴욕)



내가 우리 모교의 병리학교실에서 레지던트로 있을 때 있던 일이다.

늦가을이면 의과대학 뒷마당에도 낙엽들이 깔리기 시작했다. 바쁜 우리들에게 계절 변화라도 알려 주듯이. 그리고 그 당시 의과대학 건물 뒷마당에는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 식당이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의과대학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곳이었다. 그 식당은 대학병원 의과학 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시다가 일찍이 작고하신 선배님의 부인께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영

부인이 식당 주변에 깔린 낙엽들을 보고 하시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다.

"저 낙엽들이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는 것이 참으로 예뻐요. 나는 낙엽들이 바람에 불려서만 떠돌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저기를 돌돌 뛰어 다니는 저 잎사귀들을 좀 보세요." 라고 하셨다. 아주 섬세한 감정의 표시였다.

오늘도 낙엽들을 보니, 5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다시 생각난다. 우리 의과대학 뒷마당에서 날아다니던 그 아름다운 단풍 잎사귀들이 아직도 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 단풍잎

정태 (62, 미시간)

오늘따라 시간이 무척이나 느리게 스쳐가는 것 같다. 더욱이나 어두컴컴해 구름진 날이 곧 비와 요란스런 천둥을 몰아올 기세인데 더 그러하다. 천둥치고 소용돌이 비바람이 휘날리는 순간이 급히 다가올까 염려스러워서... 아직 가을이 시작되기엔 안간힘을 쓰는 날들이 좀 더 남아있어도 쓸쓸한 기운이 마냥 가을 날씨 못지않게 느껴집이 다 빨리 흐르는 시간이 좀 더 더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나이에 들어서일게 틀림없으리라.

그러하니 푸르디푸른 나무들 또 뿌리를 하고 있을 가진 모든 것들이 제 모양 따라 더러는 서서히 더러는 분주히 가을맞이를 하는 것이 더 없이 눈에 흰히 뜨임이 아닐까?

시간의 흐름에 민감해져가서인지 뒤뜰의 자그마한 수림 속 나무들이며 이를 다 못할 잎사귀란 것들이 그 푸르디푸른 색깔을 안간힘 써가며 조금씩 잃어가는 시늉마저 하는 듯 이곳 저곳에 희미하게나마 단풍의 아릿한 색을 띠어가는 것이 눈에 뜨임은 어찌할 수 없는가 보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숲속에 이름 모를 푸른 잎사귀를 한 모든 것들과 그 사이에 의시대며(?) 요염하게 끼어있는 아름드리 단풍나무들 다 함께 일시에 단풍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앙상하게나마 보이는 가지에 달린 한 두 잎사귀가 유별히 먼저 단풍맞이 나선 것이 눈에 띄어움을 외면할 수 없다. 그 많은 가지들에 달린 잎사귀들 속에 저 홀로인양 의시대며 제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내가 제일 잘났다" 과시함에서 이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피어야 산다. 하는 남다른 의욕 때문에 가을은 아직 저 만큼에도 와있지 않은데 남들은 아직 단풍들을 염두에 두지 있지 않은데 저 먼저 서둘러야 하는 것은 왜서일까?"

저 자그마한 푸르디푸른 뒤뜰의 수림을 응시하다 보면 큰 나무는 큰대로 아무런 으르렁임 없이 또 그 틈에 끼어 날아가는 작은 것들은 저 작은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위압 받지 않고 다 저대로의 자리를 마다않고 제 능력대로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리의 따름에서 이고 보면 먼저 뛰고 뒤따라 뛰는 놈의 있는 적도 하나다.

달력에 며칠 지나면 가을이 시작된다 명시되어 있다. 입추라 하였던가.

시간(관념)은 삶이 이루어졌던 최초로부터 아니 사람이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전제해 보면 모든 것이 진전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순리일 게고 그러하다면 먼저가 있고 후(따름이) 있고 하는 흐름이 있을 테지.

봄들어 수줍게 마저 보이던 잎 봉우리들이 푸르디푸르게 물들었다. 서서히 단풍잎 되어 싸늘해져가는 가을바람 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리저리 땅에 뒹굴어 논 후 눈에 힘없이 덮였다 땅속에 고이 파묻혀 아무런 바람 없이 모든 뿌리한 것들의 좋은 거름이 되어가며...

사람인들 어떠하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런 한데...

저 홀로 황홀하게 또 별절게 단풍져가는 일을 가진 앙상하게 보이는 나 못가지가 어쩐지 가을맞이하는 한가지 못한 이 마음을 더없이 안달하게 함을 어찌할 수 없다.

가을이 시작되고 그 푸르디푸른 자그마한 수림이 온통 단풍들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에 그 단풍진 황홀함을 잃어가며 별거숭이가 될 테지만 봄 오기 전에 그 앙상하게 별거숭이가 된 가지들에 볼품 못지않게 하얀 눈꽃 제 별거벗은 앙상함을 덮어 가며 눈 가진 모습 것들을 다시 현혹할 것이 틀림없다 생각을 가져보니 그 안달함이 좁은 위로되어는 것 같다.

그 끊임이 없는 흐름과 무심히 그 염원함에 도취하면서도 그 순리를 두하지 못하고 맹인 되어 나밖에 못보는 어리석음을 냉수 마시듯 하는 것이 다 나만을 아둔하게 고집해서일게 틀림없으리라. 허기야 내가 있어 너와 그 또 주위가 있는 것이(유심론적 견지에서) 혹자들의 주장이겠지만 저 자그마한 뒤뜰의 숲이 보여주듯 그 속의(이 세상의) 모든 이름도 모를 뿌리 내려 일가진 것들(그 속에 못 벌레들이 왜 네 발가진 짐승들은 어떠하랴)이 너 나 없이 크고 작음 탓 않고 제 자리에서 제 힘껏 제 멋대로 서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서늘해져가는 이 눈과 마음에 부럽게 또 경이로이 보인다.

"냇물은 앞 다름 없이 뒤 탓 않고 흐른다" 지요.

단풍잎 사뿐히 띄워가며...

#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 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원고는 가급적 1면이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종교적인 내용과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해주시요.
- 원고는 한글이나 Word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혹은 CD 는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일을 그만 둔지 이틀 후 Acura Sport MDX에 나와 아내의 목숨을 맡기고 서부로 달렸다. 자석에 의해 무의식 세계의 블랙 홀 속으로 끌려가듯 서부로 서부로 달렸다. 왕년의 개척자들은 금을 캐는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떠났지만 나는 배낭맨 나그네의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떠났다.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인 여행을 하며 보고 듣고 느낀 체험들을 뇌 깊숙한 해마(Hippocampus) 속에 간직하고 싶었다.

**Close call**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보수공사로 차가 막혔다. 한 20분 쯤 기어가다 길이 트여 속도를 높였는데 갑자기 옆 라인에 있던 차가 내 쪽으로 끼어들었다. 젊은 여자가 운전 중 텍스 메시지를 보내다 잠시 핸들을 놓친 모양이었다. 급히 피해 사고를 막은 Close call 이었다.

크로스 풀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경기 중에 심판이 긴 가민가 애매한 상황에서 내린 어려운 판정을 뜻했다. 지금은 아슬아슬한, 큰 일 날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쓴다. 어제가 9-11 십 주년이라 도처에서 추모행사가 한창이다. 미디어들도 그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가서, 출근길에 타이어가 빵구나서, 늦을까봐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등등 화를 면했다는 크로스 풀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필자 또한 9-11을 잊지 못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둘째딸이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학회를 마치고 뉴욕 친구 집을 방문 중이었다. 그 애가 학교 일로 하루 앞당겨 돌아왔기 망정이지 아니면 United Air line 93과 함께 펜실바니아의 작은 타운에서 사라질 뻔 했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로스 풀을 종종 경험한다. 처음엔 무척 놀랐으나 세월이 가면 점점 잊어버린다. 죽음이 삶의 가장 좋은 발명이라면 망각은 뇌의 가장 우수한 기능이 아닐까. 될 수 있으면 잊으며 살자.



**Don Quixote**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이었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겁이 났다. 실로 목숨을 건 나들이 이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왜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란 주위 사람들의 말도 머리에 맴돌았다.

내 계획이 17세기 소설가 Cervantes가 쓴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 같은 무모하고 아집에 눈먼 망용일까, 아니면 1800년 5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으며 자기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강한 의지 때문일까?

나는 숙명이란 단어를 강박적으로 믿고 죽음도 생체시계의 테가 다 풀어지면 끝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돌 다 아닌 것 같다. 내가 시카고 주위에 있던 네바다 사막에 있던 사고와 죽음의 위험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내 생각을 흔든게 만들었다. 그것도 잠시, 끝없이 펼쳐진 들판, 잔 웨인의 고향인 아이오아를 달리며 환자로 부터 책임을 벗어난 즐거움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잔 웨인의 서부 활극은 대부분 돈

키호테 식이다. 머리가 빈 비이성적 행동으로 인디언들에게 총을 겨누는 이야기들이다. 이번 서부여행을 하며 인디언들이 겪었던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왔다. 역사의 흔적은 아무리 지우려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끌어온 돈키호테식 중동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게 미국이 지금의 불황에서 빠져나갈 길이다. 월남

보이는 캐년의 장관은 speechless 였다. 생전에 이런 전망은 본 일이 없어 입이 딱 벌어져 밥 먹는 것조차 잠시 잊었다. 흐늘거리는 얇은 안개, 울퉁불퉁 뻗쳐 나온 붉은 바윗돌, 웅장한 침묵과 자연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캐년에 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지구의 한 북반에서 있는 기분 이었다. 또한 내가 지구촌에 살면서 온 힘을 바쳐 이루어 놓은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 길 위에 목숨을 걸고

천 양 곡(69, 시카고)



전의 패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로키 산맥을 이루는 바위산들은 뉴멕시코, 유타, 애리조나 쪽으로 내려오며 모양이 점점 바뀐다. 빗물에 씻기고 바람을 맞은 바위가 햇볕에 붉게 타서 색깔이 변한 것이다. 유타의 대표적 바위산들은 Bryce와 Zion 국립공원에 있다. 억만 년 전 땅 속으로 부터 지구의 껍데기로 불쑥 튀어나온 돌덩어리들이 빗물에 젖고 바람결에 깔리고 햇볕에 그을려 묵묵히 서 있었다. 브라이스 캐년의 돌산들은 형형색색으로 마치 돌 잎으로 단풍이 든 모양이고, 돌들의 형상도 가지각색으로 지구촌의 모든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자이온 캐년의 공원 입구에서 Visiting center까지 가는 10마일 길은 정말 험했다. 황토와 황석으로 깔린 좁은 two lane으로 길 양쪽은 깎아지른 높은 돌산들이 버티고 서 있었고 가는 도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앞을 가려 정말 힘들게 지나갔다. 아내는 3년은 감수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자이온 캐년은 공원의 면적은 적었으나 크고 높은 돌산들이 많았고 대부분이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공원 안의 호텔에 묵으며 tour 관광도 취소하고 뒷산에 올라도 보고 동네도 거닐며 나름대로 즐겼다. 아침에는 사면이 가까운 붉은 바위산으로 둘러 쌓인 호텔의 back porch에 앉아 tea를 마시며 산에서 퍼져나오는 정기를 마음껏 들여마셨다. 이곳이 산의 정기를 받는 데는 애리조나의 세도나 지역보다 훨씬 낫은 것 같았다. 정말로 아름다운 공원 이었다.

**Utah rocks**

가장 가보고 싶던 그랜드 캐년의 North Rim으로 달렸다. 길 양편으로 불에 그슬린 나무들이 고독과 절망을 이겨내듯 애처로이 서 있다. 산이 너무 비좁고 풍요로워 조물주께서 산을 지키려고 불로 교통정리를 한 건가 군데군데 산불이 난 흔적이 보인다. South Rim보다 더 높아 경치가 좋고 커머셜이 덜 되어 조용하다는 소문대로 비지팅 센터는 그리 붐비지 않았다. 대충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Bright angel point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참문 아래로

없음을 잠깐동안 느껴보았다. 점심 후 태고의 흙무덤으로 다져진 Bright angel post trail을 조금 걷다가 다시 차를 타고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높다는 Imperial point까지 다녀왔다.

**Lunch at Bright Angel Point**

노스 림에서 사우스 림으로 들어오는 길 밖의 풍경은 해안선의 도로, 산능선을 돌아가는 길과는 다른 풍치였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넓은 대 초원으로 달리다 보니 마치 내가 말을 타고 악인을 쫓는 서부활극의 주인공이 하는 착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이 길만은 한번 운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들던 대로 사우스 림은 공원 입구부터 자동차 물결로 혼잡했다. Rim을 따라 지은 lodge에 여장을 풀었다. 바로 나가면 캐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Rim lodge는 가격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힘들어 일찍 예약을 해두는 게 좋다. 깊이 파진 캐년을 내려다보니 태고의 침묵이 밑바닥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 물줄기에 빨려가듯 신령스러웠다.

**Rainbow and sun rise in South Rim**

3시간 정도의 버스 투어 관광을 하며 가이드로부터 그랜드 캐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관광도 중 하늘이 열리고 한바탕 소낙비가 내리더니 잠시 후 캐년 위로 거대한 무지개가 떠올랐다. 평생 이렇게 큰 무지개는 본적이 없다.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 된 지금도 그렇다. 아마 늙어진 후에도 그럴 것이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구절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나왔다. 새벽 일찍 그랜드 캐년 일출 관공에 참가했다. 가이드의 안내로 해돋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를 기다렸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동안 나는 Mantra의 mindfulness 명상에 젖어 보았다. '현재,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내일을 잊고 그저 오늘만을 위해 살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된다는 말이다.' 오랜 지처럼 떠오른 해는 주위를 서서히 비추더니 얼마 안가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었다. 밤이 지나면 틀림없이 떠올라 온 우주를 지켜주는 해의 은덕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 날마다 만나 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진리도 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며 살자. 그랜드 캐년의 무지개와 일출을 보며 지나간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Angel in Santa Fe, New Mexico**

아쉽지만 갈 길이 멀어 그랜드 캐년을 뒤에 남기고 Santa Fe로 방향을 바꿨다. Santa Fe는 언젠가 한번 가 보리라 마음먹었던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다. 가는 도중 억만 년 전에 떨어진 거대한 유성(Shooting Star)으로 깊게 파진 곳을 들렀다. 가이드 말로는 지금도 지구촌이 유성에 맞을 확률이 있다고 한다. 그 유성을 손으로 만지며 11년 전 해븐스 게이트 지도자 Applewhite씨가 주도한 신도 집단 자살 사건이 떠올랐다. 지구촌이 유성에 맞을 확률이 있듯 해븐스 게이트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주말에 산타페에서 무슨 페스티벌이 있는지 이 주 전에 예약했는데도 마땅한 호텔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투어 관광을 하며 산타페 시내 여러 군데를 구경했다. 특히 뉴멕시코 주의회에 진열되어 있는 art collection들은 정말 불만했다. 특별히 museum에 갈 필요가 없었다. 그림 좀 살려고 gallery에 들리니 값이 엄청 비싸 거리의 무명화가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세 자식들과 휴스턴에 사는 친구 뒤편으로 몇 점을 샀다. 누가 아느냐, 이 그림들이 훗날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 될지.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 가끔 fast food을 먹을 때가 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근처 맥도날드에 들려 밥을 먹은 후 소화도 시킬 겸 호텔 주위를 몇 바퀴 돌다가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보, 내 purse 어딴어?" 맥도날드에 놓고 온 게 분명했다. 그 bag 속에는 현금, 크레딧 카드, 운전면허증 등 중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찾을 가망이 희박하지만 나는 뛰다시피 맥도날드로 들어갔다. 저녁 먹을 때 몇 자리 건너 뒤에 앉아있던 노신사 한 분이 나를 보고 자기가 매니저한테 bag을 맡겼으니 찾아가라고 일러줬다. 우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 분은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니면서도 우리를 도와 주었으니 먼 곳에서 천사를 만난 기분 이었다.

**Las Vegas in Nevada**

오랜만에 다시 와보는 라스베가스 호텔에 짐을 풀었다. 최신식 호텔들이 몇 개 더 생겼을 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그랜드 캐년 부근에서 하늘이 아주 맑은 밤이면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했다.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250마일 거리까지 비친다는 이야기다. 밤과 낮이 없는, 어린 소년 소녀 창녀들의 중심지, 돈과 향락이 넘치는 라스베가스는 이제 부동산 값 몰락으로 바이블의 소돔과 고모라가 될까 염려스럽다. 나는 카지노에는 손 한번 대지 않고 유명한 쇼를 관람하고, 밤거리를 산책하며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 만나 잘 알려진 골프장에서 골프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Alamo in San Antonio**

예약해둔 샌안토니오의 다운타운 호텔에 거처를 잡았다. 거의 100도를 가리키는 무더위 속에 야자수가 너울거리고 있었다. 알라모 요새의 벽이 보이는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시내 산보를 나섰다. 밖은 사람과 노래 소리로 시끌시끌했다. 150주년 알라모 전투를 기념하는 축제 비슷한 행사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 날 밤 12시 넘어서 까지 시끄러워 잠도 <다음면에 계속>



## 학형 이진용(63)박사 영전에

- 우리 우정을 곱함 -

이 흥 빈 (63, 대뉴욕)



이 박사의 이런 웃음

이 무슨 기가 할 소린가, 소식인가. 당신 부음이라니, 이 양반아. 당신이 즐지에 세상을 떠나다니, 이 양반아.

그 건강하고 건강턴 당신이 영똥하게도 낙상 사고 후유로 세상을 등지다니.

오호, 통재라! 그럴 수가 있는가. 못 가 보면서 예 앉아 하늘 치켜 애통하노라.

평생 그 열정, 오열하는 당신 사람들 다 뒤로 하고 영 떠나다니, 이 무슨 소린가.

우리 인연을 당신이 더 잘 알까, 내가 더 잘 알까.

우리, 한창 꿈과 이상을 키우던 대학입학 후 우습게 우린 인연되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자구, 우린 운명으로 돌아리져, 덕 쌓으며 믿고 살아 왔는데, 그약친 못하고, 참 그렇게도 순하고 선할 수가 없었던 젊은이들이 이젠 늙은 우정으로 영원토록 같 것 같이 믿고 살아 왔는데!

서로, 꽤는 늙었으면서도, 굳이 누가 먼저 떠날 것 같은 얘기, 그런 얘기 같은 건 없이, 맨날 옛 젊은 쪽으로 인생 그 쉽게 우스게로만 알고 지내 왔는데, 그러면서, 만나 같이 하면, 아 - 그 무후한 자리, 그렇게 서로 순수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뒤 짚어 봐도, 순진했던 그대로, 시간 지나는 우정을 우린 늙어도 애들처럼 같이 했는데.

돌아켜 보면, 우린 공부는 뒷전이고 그렇고 그런, 엇비슷하니 절렁한 폴골들이 자연스레 돌아릴 졌었지, 착실하고 공부 열심인 똑똑한 빛은 눈치 보아 빠져나가고, 그렇고 그런 절렁하던 빛이 패기와 슬망나니로 뭉쳐, 평생을 엮었지.

나름으로 큰 꿈과 이상을 품고 키워 자넌 모교 산부인과에 남아 모진 전문수련과 그 시련으로 정진해 학과장, 주임교수, 을지병원장,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학회장, 그 이사장 등은 인재 대학/백병원장 이흥균 박사와 서로 밀거리니 끌거리니 주고받고 두루 거치며, 서로 믿거리니 의지하거니, 보탬 있어 행복했고, 모교에 앉아 계남은 동기 몇 중 우리들의 대부역을 해왔고.

그 와중에, 젊어서 키우던 꿈 적중하여 그 곱고 참한 아내 만나 현모양처로 더불어 수줍던 사람 만끽하고, 그렇게 잘 난 삼 남매 두어 뼈까번쩍 꿀꿀하게 키워내고, 다섯 손주들 거느리고.

나이 들며 이선으로 옮겨 앉아서도 여전히 그 준수한 풍모에 우아스레

여직 환자보며 일 나가니, 우리 가끔 같이 하면, 우리 말이 너희 참 잘하는 짓이다. 얼마나 좋으냐, 늙으며 나날을 천직인 전문일로 소일을 할 수 있으니, 복 받았지. 왜 그만 뒤, 보람으로 즐기며 계속 하는 거지. 늘그막 몸과 마음에, 또 더더욱, 마누라 비위에 그보다 더 좋을게 어데 있겠냐며 부추기고 용기 넣고 부러워하곤 했는데.

저런 고국에 남아 분투, 우린 이국 땅에서 고투, 그렇던 어려운 시절, 종종 전환 걸어 이곳 무섭던 외롭을 달래주고, 즐겁던 옛 얘기, 반가운 새 얘기 하며 용길 불어넣어 주곤 했었지. 시간차를 생각 해, 내 이른 아침/너희 밤중, 내 밤중/저희 아침에 맞춰가며, "...야, 흥빈아!" 하면, 그 첫 목소리로 금방 난 "아, 이놈, 술자리로 구나!" 를 알아채곤 했지.

그렇게 틈틈이 전환 해주는 그 고맙던 마음.

최근에, 저 세상 떠나기 불과 삼사 주 전, 내게 전화가, 저 일을 그만둔 날 이란다. "어? 왜?" 했더니, 허리가 아파 운신이 힘들어 지고 일에 미안코, 모두 말리는 걸 마왕고, 결단을 내려 그만 뒀단다. 아무리 그렇단들, 그 결단 후 책상 비우고 오피스 정리하곤 떠난 맘이 오죽 착잡, 서글펐으랴. 그러니, 가까운 친구께 전화라도 해 맘 달래던 거 였겠지. 그러면서, 날잡아 아랫등골 수술 하기로 되었다면서, 정형외과 내게 그래도 더 할 말이 많았겠지.

그러곤 마지막 통화가, 이 양반아, 당신이 세상 등지기 한 삼 주전, 그 날도 저희들 몇이서, 그제, 늘 그림자처럼 돌인 흥균이, 그때 예서 나갔던 중두, 그렇게 저희 몇이서 함께 하던 밤/내 아침에, 전화가, 저희만 미안해 설까, 생각나설까, 허 풀린 소리로, "야, 흥빈아! 우리 지금 여기..." 하던 그 풋풋함.

가끔 때 따라 하는 안부 전화는, 제 아침/내 저녁에 "잘 있냐?" 이고, 술 먹는 자리, 옛 정으로 허 풀린 소리, "야, 흥빈아!" 는 늘 제 밤/내 아침에.

그러니, 금방 계획했던 허리 수술도 전에, 그 무슨 해피한 낙상 사고가 덧나서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이 양반아.

서로 늙어가며, 물러나 앉고 예전같이 여길 자주 못 드나들게 되면서 내 짝 오질 않으니, 한탄 소리가 매번, "... 한번 안 나오냐?" 었지.

그래, 내 이번엔 뭐됐나, 이 양반아. "응, 그래, 우리 50주년에 큰 잔치일테니, 그때 보면 되지. 그랜 나가도록 할게. ...금방이야, 이 사람아, 우리 건강하길 잘 있자구!", "건강히" 를 다짐을 했잖나 이 양반아.

이 여러고 작하기만 하던 친군, 그 말씨며 피식 웃는 것도 그리 순한 인품일 수가 없었지. 어려 젊어서 꽤나 수줍었고, 그래 그쪽 우리 농담이, "...저게 장갈 가면 그 하나문 첫 날 밤, 또 평생을 두고 제 여편네에게 달려들 때마다 뭐라며 어떻게 다가갈래? 손 비비며, 실례하겠읍니다 하며 다가갈래, 너?" 하며 웃곤 했었지.

우리 서로 바쁜 천지생활, 그 많은 세월을 미국엘 거의 매년, 서로 그림자처럼 흥균이와 틀어 저희들 학회로 많이도 드나들 때, 그걸 마치고는 그리 그리 계획을 짜선 내걸 꼭 올라와 며칠을. 난 그 대비해서 오피스 수술 계획, 병원당직일 다 접어 미루고 기다리고.

그래 매번, 며칠을 함께 지내며 놀아주고 떠나곤 했지. 그게, 골프치고 당연히 먹고 마시며, 인사가 아니라며 집사람은 왜 꼭 집에서 대접을 했고, 옛 얘기 새 얘기로 밤을 새우고, 술냄새 풍기며 떠나고, 그 떠내 보내는 난 매번 눈시울이 핑 했고.

매년 고맙게 시간을 만들어 학회 마친 후 내게 오는 게 대개는 우리 추석 때여서 더욱 감회가 깊었고, 그러니 예서 모여앉아, 이국 땅 내 추석을 달래며 마시고 떠들던 그런 저런 추억들.

한 해, 우스웠던 얘긴, 내가 업 스테이트 올바니 파티에 누구넌가 모여가 앉았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던 그 날 밤, 웨 잘못됐던지 영똥한 라파디아 공항에 저힐 오밤중에 내려 났는 지라, 그날 맨해튼 나가서 자고 답달 데리러 오라던 계획을, 우리 지금 여기에 이 밤중 떨어 졌으니, 지금 오란다. 너희, 뭐건 타고, 계획대로 맨해튼 나가 자면 널 아침 첫 새벽에 일찍 데리러가마 예도 막무가내로, 기다릴테니 지금 당장 오란 거다. 내 살던 킹스턴이면 두 시간 반, 올바니에 올라가 앉았으니 이전 네 시간 반이 넘는 거라. 빗 바람이 억수로 퍼붓던 밤, 그래도 저희 둘이라 심심찮게 쉬며 기다릴 테니 그날 밤으로 오란 거다, 그러니 파티에서 다들 입을 벌리는 자릴 빠져, "...그럼, 기다려! 근 다섯 시간이야, 너!" 하곤 네 시간 반이 넘는 쪽우속 늦은 밤길. 가보니, 멀쩡히들 바닥에 기대앉아 기다리고 있는 꼴을 보며 눈물이 왈칵 하던 건,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옛 우정으로, 근 평생을 떨어져 살면서도 늘창 우리 말이, 저는 내

게 문안, 나는 제게 안부, 그런 우스갯소리로 소식 오가며, 서로 보기는 아쉽게 그저 더러 만나며 우리 이 늘그막을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기가 막힐 부음이나. 당신이 즐지에 세상 하직을 했다니, 이 양반아.

어쩌다 서울엘 가면, 바닥에서 울어나는 그 반가움, 그 반김, 그 선한 말소리, 그 인자한 웃음. 그러곤, 그 복잡한 쳇증 서울 여기저기, 나도 오랜만에 불일은 있겠건만, 이젠 차라리 맨날을 저녁이면 돌아가며 좋은데서 후대해 먹고 마시기.

그래서 내 농담이, "너희 몇이 이러는 거면, 난 서울엘 온들 어느 누구 만나 볼 여가가 없네."

그러다, 이 양반아, 이렇게 훌쩍, 말도 안 되게 세상 떠나 버리면, 담엔 무슨 감힐까, 서울을 가도.

이러면서 예서 가슴만 아파했지 달려가 마지막 가는 길 못 보는 난 여성 죄인이니 이를 어쩌랴, 이 양반아, 이 친구야.

그 열정, 당신의 평생 사람들 그 열정을 다 뒤로 하고 내 몰라라 가 누웠으니, 그래, 편한가?

오호, 통재라. "蓋棺事方正" 이라던가, 사람이 바르게 반듯하게 살았음은 그 사후 덮고 묻은 언 후에 알 것이란(채근담) 말은 당신 같은 이를 두고 한 말은 아닌걸 아시게. 당신 그 인품과 덕망이야, 이 양반아, 생전에 세상이 두루 다 알던 터.

즐지에 한 팔이라, 두 팔다라 꺾인 흥균일 생각해도 가슴은 무척 아프고, 아무런들, 난 여길 와 있지만 저는 게서 서로 그림자처럼 평생을 계속 함께 했으니.

흥균이, 그의 말이, 제가 지어준 당신의 호 "如鶴", 그렇게 당신은 학처럼 고고히 살다, 정 다 주고는 말도 없이 고요히 날아가 버렸다 하더군.

"학 같아" 날게 있음에 나왔을까, 당신 천국에 이르기.

천국, 믿음 있고 그닥 선하고 인자하기로 당신같은이 혼백이 당연 같 곳으로 예비되었을 곳인즉, 게 잘 있다가 훗날 만나자구.

게서, 혹여 다시 넘어지는 일 없이, 정신 가다듬어 잘 있다가, 너무 한참 오래돼도 내 안보이고 못 찾겠거든, 피러에게 내려가 물어. 베드로라고 해야 알아들여? 그래, 베드로에게 가 물어, 흥빈이 이 앤 안 들었느냐구, 그 앨 얼루 돌려 세웠느냐구.

내겐 당신같은 친구 두었음에 내 행복했고, 당신도 내같은 친구 있어 그 행복에 보탬 됐을까.

편히 영면하시게, 이 양반아.

애도하며, 명복을 빌며,  
2011년 12월 23일, 당신 삼우젓 날,  
벗, 이 흥 빈

<전면에서 계속> 설쳤다. Alamo는 18 세기 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한 후 멕시코 영토였다. 그런데 미국에 살든 앵글로 색슨 계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이민자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국을 선언하자 멕시코는 가만있지 않았다. 결국 Alamo(지금 San Antonio 지역)에서 200명도 안 되는 텍사스 의용군이 1천 명이 넘는 멕시코 정규군과 싸워 전원 전사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돈키호테 행위는 훗날 텍사스 주민이 알라모를 재탄환하는 밑거름이 된다. 잘 복원된 알라모 요새의 벽돌담을 만지며 그 당시 전투의 현장을 상상해 보았다. 알라모 요새는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다. 이곳에 살면서 미국이 영똥한 일을 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러나 그게 미국을 이끌어 가는 힘인지 잘 복원된 알라모 요새의 벽돌담을 만져 보았다.

**Birthday during a trip**  
Huston을 지나칠 수 없었다. 서로 친구하자고 말한 일은 없지만 오랫동안 친한 친구관계를 맺어온 내과의사 이용환 집에 들렀다. 이를 동안 묵으면서 몇 주 전 Senior PGA 챔피언십이 열렸던 골프장에서 골프도 치고 밤이면 늦도록 추억이 담긴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금년의 텍사스는 몇 십 년 만에 오는 가뭄과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휴스턴에서 Austin 가까이 오니 산불로 쓰러진 나

무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오스틴은 텍사스의 수도로 콜로라도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Dell Headquarter와 텍사스 대학이 있는 미국 제2의 반도체도시, 교육도시로 젊은이들이 많다. 처가의 고향이 텍사스라 아들이 일찌감치 그 곳에 직장을 얻어 살고 있다. 실이 바늘 따라 간다는 속담은 이전 물 건너가 버린 느낌이다.

환갑 때는 생일을 유럽 여행 중 독일에서 맞았는데 금년은 아들집에서 보내게 됐다. 생일은 나를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날이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에 미국 사촌까지 참석해 주어 기분이 좋았다. 생일이 오면 무엇보다 낱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 다음 해에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여쭙지만 매년 공수 표만 끊어왔다. 이제 일도 끝났으니 성질도 덜 내고 느긋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금년에 깜박하고 지나친 아내의 생일을 앞으로는 꼭 기억하리라 다짐해 본다.

거의 4주에 걸쳐 장장 6,000마일을 뛰고 왔다. 그리고 길 위에 걸어놓았던 두 목숨(실은 콧숨이라야 맞다. 코에서 마지막 숨이 끝나니까)도 거두어 왔다. 시끄러운 현대인의 삶을 핑개치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보고 왔다. 여러 곳을 더 다녔지만 지면상 그만 마쳐야겠다. 이번 여행을 위해 여러모로 마음 써 준 세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꿈속에서 들리는 음성 같았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계십니까? 기내(機內)에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떠난 지 10시간쯤 되었을 때다.

아직도 4시간은 더 가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아마도 러시아 상공 어디를 777 항공기는 날아가고 있었다.

전 같으면 불이 나게 환자에게 달려 갔겠지만 이제 은퇴도 했겠다, 더구나 이곳은 비행기 속인데, 아마도 그저 누가 좀 아픈가 보다 하면서 나는 비몽사몽간에 대부분의 승객들처럼 자던 잠을 계속 자고 있었다.

갑비침으로 저녁식사를 두둑이 하고 깊이 잠들어 있어서 처음에는 무슨 꿈속에서 들리는 음성 같았다. 그런데 45분쯤 더 지났을까 또다시 방송을 한다.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직도 이 많은 승객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단 말인가’ 하며 정신이 들었다.

아내가 나를 보며 “당신 의사가 아니야?” 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나는 비로소 잠을 깬다.  
그리고 잠시 옷을 잘 가다듬고 신발을 찾아 신고서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 되는 뒤쪽으로 서둘러 갔다.

한 칸을 가니 다음 칸으로 연결된 평소엔 스튜어디스들이 일을 하는 바로 그 공간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바다에 나이가 많이 든 동양여자 환자가 똑바로 누워있다. 여러 명의 스튜어디스들과 한 명의 남자 승무원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의료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은퇴한 의사인데 도움이 필요하나요?” 하니 그렇다고 한다.

나는 환자의 머리위에서 엠부백(Mask Ventilation Bag)을 주무르며 호흡을 돕고 있는 승무원에게 목의 위치를 잘 잡아주고 혈압이 잡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내 손을 얹고서 찾아 보아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아주 심하게 여윈 팔에는 혈압기를 부착하였지만 혈압도 기록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늘 가지고 다니는 청진기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행기의 심한 소음 때문에 청진기 같은 것은 쓸모가 없었다.

환자 곁에는 그녀의 사위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근래에 좋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라이라 라고 했다.

간단한 병력을 물어보면서 ‘라이라 라이라’ 하며 우리는 그녀를 큰 소리로 부르며 얼굴도 때려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환자의 몸은 바짝 말랐지만 양쪽 다리는 퐁퐁 부어있었다. 몇 분 전 변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쓰러졌다고 한다. 장시간 여행에는 필수라고 하는 걷는 운동도 하지 못해서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올라갔었거나 심장 마비의 증상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여자 승무원에게 잠갑을 끼고 심장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했다(별다른 잠갑은 안 보였음). 몇 분 후 나는 환자의 상태가 이미 사망한 것 같아서 승무원에게서 전지(flash light)를 구해서 양쪽 동공을 비춰보았다. 동공은 이미 최대한으로 확장되었고 고정되었다. 사망(死亡)이 거의 확실하지만 한 번쯤은 심장에 전기 쇼크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승낙을 얻고나서 디휘블레이터(Defibrillator)가방을 열고 장비를 꺼냈다. 그리고 환자가 목에 걸고 있는 보석이 담긴 작은 꽃주머니를 꺼려서

사위에게 주었다. 아마도 그녀가 아끼던 귀중품들이 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응급가방 속에는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Certificate 교육시 우리가 보던 디휘블레이터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환자의 여윈 가슴에 부착했다.

나타나야 되는 심전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시하는 대로 버턴을 눌렀다. 그러나 자극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보

타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망한 그녀와 같이 35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문상객의 자격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痛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날아가고 있었다. 하늘 위에서 벌어졌던 이 예기치 못하던 시간들이 신비하게만 느껴졌다.

불경(佛經)에 한 알의 모래알에 수만 가닥의 인연이 얽힌다는 이야기도 생각났다.

비행기의 엔진소리가 더욱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꼭 구름 속, 말로만 들

##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



서 윤 석(68, 오하이오)

이지 않았다. 수차례 시도를 하지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기계음성이 나온다. 나는 다시 동공을 확인했다. 양쪽 동공이 열려져 있었고 고정되었다.

나는 CPR을 끝내고 사망을 선언했다. 그리고 사위에게 알렸다.

“대단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나는 내 자리로 되돌아왔다. 비행기는 아직도 4시간을 더 날아 가야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있었다.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는 내가 얼이 빠진 사람처럼 한 마디 말도 없으면서 죽은 사람을 보아서 무서워서 그러냐고 했다. 그리고 왜 나의 셔츠가 그토록 폭 젖어 있느냐고 묻는다.

물론 혼이 났거나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때 나는 꼭 깊은 잠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 저 할머니와 같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일까? 참으로 죽음이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아무도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또다시 깨닫게 한다.

한편 88세까지 살다가 저처럼 이 세상을 훌쩍 떠나 버리는 저 분은 어찌면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고향에는 몹시도 슬퍼하고 있을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라이라 아디오스, 안녕히... 이렇게 보라색 장미꽃 한 송이는 한편의 시(詩)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오래 오래 머물고 있을 것이다.

얼마 후 비행기의 기장(機長)이 내 자리를 찾아왔다. 자기는 찰신야티 오하이오에서 살고 있단다. 기장으로서 책임을 확인하고자 인사를 하러온 모양이다. 그녀가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사망했다는 진단명과 함께 한글로 된 병명도 적어 주었다. 물론 나의 의사면허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기체 내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처음이라면서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기장으로서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에게 나도 라이마 오하이오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워했다.

그런데 이날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우리가 사용했던 그 응급가방을 스튜어디스가 바로 내 발 앞의 왼쪽 캐비닛에 넣어두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묘한 느낌을 받았다. 우연이긴 하겠지만 오하이오에서 온 비행기 기장에 오하이오에서 온 나를 하필이면 이 자리에 앉히고, 바로 내 앞에 왜 그 가방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면서...

오드리 헵번처럼 머리를 뒤로 예쁘게 빗어 올린 이 미인 할머니를 천사 같은 아름다운 젊은 스튜어디스들이 훨훨 날아다니며 살려보려고 무척 애

던 하늘나라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서히 경직되어가고 있는 그녀의 육신과 함께 시베리아 상공을 계속 날아갔다.

만주 땅을 거치면서 북한 상공만은 피해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네 시간 후 안개가 자욱이 끼고 천둥번개가 번쩍이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우리 비행기는 요란한 문풍지 소리를 내면서 육중한 바퀴를 내려놓았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10분 정도 우리는 기다렸다.

기장이 방역담과 교신하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문 앞에는 방역대원들이 얼굴에 마스크와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오렌지 색깔의 들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면 그 시신을 운반할 예정인 것 같았다.

기내에서의 승무원들은 참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 기록을 담당하는 승무원은 병원에서처럼 자세히 상황을 기록하고 각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두들 CPR시에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잘 다루고들 있었다.

내가 처음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첫째로 필요한 절차인 기도(air way)를 잘 확보하고 있었고 필요한 Cardiac Massage를 하는 동작에서도 평소 CPR 교육을 모두 잘 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기내(機內)에서는 링겔 정맥 주사약이나 칼이나, 바늘이나 다른 의료 기구는 이날 못 보았다. 하늘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속이었는데도 승무원들이 모두들 민첩하고도 질서 정연하게 행동했다.

그런데 지난 40여년 의사로서 본인이 보아온 여러 환자들의 사망과는 이번 경우는 좀 달랐다.

첫째로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모든 치료행위에는 의료소송의 문제를 늘 생각하여야한다. 사마리아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을 도와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비행장이나, 콘서트 홀, 쇼룸, 혹은 고속도로 길가에서 자원해서 환자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끔 들었다. 참으로 용기(勇氣)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와는 달리 병원 내에서도 우연히 응급처치를 돕다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여 수년간 곤욕을 치렀다는 동료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근래에는 미국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친구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했더니 그는 웃으며 법조항을 대면서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

응급상황에서, 금전적으로나, 자신의 현재 직장이 관계된 치료법이 아닌 선의의 구조작업에서 “조심스럽게 적절한

행동과 기술로” 환자를 도우면 좋은 의미의 사마리아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걱정을 말고 도울 수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어도 된다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의사들이라고 다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각자 전공이 다르다. 은퇴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준비가 안 되신 의사 분들도 있다. 또 CPR 훈련을 계속 받은 일이 없으신 분들은 잘 도울 수가 없다. 그러나 가능하면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다. 응급전문 의사나 병원 내에서 자주 응급환자들을 다루던 분들은 더 적임자일 것이다. 그래도 마취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외과의사, 하우스닥터 등은 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의사 개인의 경험에 따라 능력과 자격이 다르다고 본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보통사람들 보다는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 가지로 위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과를 하는 젊은 2세 여의사가 비행기 속에서 심장경색증으로 고생하는 심장내과의사인 환자를 살린 이야기도 들었다.

한편 승객이 되는 사람들은 특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되도록 장시간 비행기여행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공 회사 측에서도 필수로 건강이 나쁜 이런 환자들을 탑승 전에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일이 있는 후 국내의 신문지상에서 비슷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모든 입장을 고려해보면 시비를 가리기가 힘든 내용들이다.

피치 못 할 경우에 꼭 여행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기내에서 걷는 운동이라도 하면서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응급 환자가 있으니 나와서 도와 달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환자를 도와 줄 수 있는 의사가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있는 것도 ‘양심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이것은 의사가 된 사람이면 결정해야 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결정을 비판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사망의 진단을 내리는데 사용했던 판단 기준이 호흡정지, 심전도의 무반응, 맥박의 정지, 특히 환자의 열려서 고정된 양쪽 동공 등 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에 도착한 며칠 후 본인은 항공사로 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본인을 귀빈실에 안내하며 비행 중에도 내내 특별 서비스를 보여주었다.

환자도 살리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도 과분한 친절을 베푼 항공사에게 회신(回信)의 글을 보냈다.

그 내용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국제법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리고 고인이 된 그 분도 그날 승무원들 모두가 그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저 세상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썼다.

의뢰된 소견이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이런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CPR 교육을 받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사마리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911(미국)나 119(한국)를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누가 아는가, 그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될지를...

\*환자의 이름은 법적보호상 실명(實名)이 아님



## Green Project Corner

### 서울대학교병원과 모교를 방문하고

이영인 (86, 대뉴욕)

2011년 11월 10일 모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임정기 학장님, 정진호 교무 담당 부학장님, 최민호 학생 담당 학장님을 만나 뵙고 세계로 응비하는 서울의대의 vision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해외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미 동문 선배님들께서 donation하신 기금은 모교 후배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학생 담당 부학장님께서 감사의 말씀과, 지원자의 숫자가 많아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여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연구 활동이 활발하신



정진호 부학장님 연구실에서 제가 현재 연구 중인 Calreticulin의 Novel Function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데니스부 선배님이시고, 전 학생담당 부학장, 현 Mexim 지도 교수님이신 김규한 피부과 과장님, 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 프로그램의 대가이신 서경석 교수님, 정진호 부학장님과 점심 대화를 나누었고, 병원 기획실장님이신 홍부외과 이정렬 교수님, 모교에 봉직하시는 정형외과 은사님이신 정문상, 최인호, 이준기, 김희중 교수님, 그리고 조태준, 김한수, 장봉순, 이동현 선생님을 만나고, 제자와 동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맥심 전회장 윤정기와 현회장 이기환, 부회장 박연정 학생과 저녁 6시에 먼저 만나 동승동 박석고개에서 식사를 하면서, 해외 의학에 관심이 주요 목적인 맥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20여명 정도의 회원이 친목과 해외교육도모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경수 전회장을 비롯해서 훌륭한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맥심의 임원진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퇴근 후 8시부터는 카페 가배두림에서 미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matching을 준비하는 졸업한 선생님들과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미국에 와서 뒤늦게 재미 동문들과 연결되는 것보다 재학생 시절부터 미리 준비하여 US graduates와 경쟁할 수 있는 application package준비를 도모하는 Green Project의 "Early Reaching Out Program" 구상 하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며칠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8명의 학생과 최근 졸업생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workshop으로 되었습니다. 참석자들로



는 신영호, 정수현, 윤정기, 고지원, 박정현, 손경락, 이기환, 박연정, 김남우, 성민정, 염태성, 정성애, 이제호, 노경진, 나종호, 정채린, 신수영, 박희선 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재미 선배님 후배님들께서는 혹시 훗날 연락을 받으시면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후배님들의 profile은 모두 감동적인 essay의 소재이었습니다. 모두 서로를 알지는 않았고, 각자 personal statement를 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하였습니다. 5명은 Spain, Belgium, Ireland, UK, USA에서 살거나 출생하였고, 6년 과정의 한의사와 수의학과 선생님도 있었고, 4년제 학부에서 수학, 물리학, 생화학, 생명과학을 전공한 학생도 있었고, 미국에서 Neuroscience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위하여 기초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현재 matching interview를 가는 Maria Jung 선생님에게는 그 병원에 있는 3명의 동문 연락처를 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름 미국에 실습을 왔었던 김유리 선생님도 만나서 진로의 방향, 미국에서의 career path, 의사들의 professional quality of life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포장되고 예견된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진로개척을 기획하는 후배님들의 모습에 제가 먼저 흥분되었습니다. 작고하신 부모님께서 미국 전공의 수련중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자라고, 모교 분과 3, 4학년 방학 기간 중 MGH와 Boston Childrens Hospital에서 Neurology 참관 실습을 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수료 후 결국 미국에 다시 오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처음 tenure(종신교수)가 된 후, NIH funded research, 정형외과 진료, University Senate, Vice Chair & Executive Committee member로서 과행정, 학회 분과위원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저로서는 험한 등산길에서 함께 산행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동료들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전공의와 junior faculty를 위한 Clinician Scholar Development Program Workshop chair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였습니다. 미국의 학생들과 소장 교수들은 자본주의의 세계 중심에서 자라고 학자금 융자의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요소가 진로 결정에 커서 미국 현실을 모교 학생들에게 미국 의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순수한 학자의 길을 왜곡하지 않는가 하는 조바심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financial aspect도 중요하기에 있는 그대로 여과없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의 토의중 제가 소개한 내용은 각 내과계, 외과, 기초 계열의 특성, 인적 networking의 중요성, 전공의 지원서 검토와 인터뷰 선발,

각 대학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미국의 사의 봉급제도, 연구의사의 현실, tenure 제도, 과연 서울의대보다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수련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여성 의료인 우대, 대학에서의 financial issues, 현지생활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개방되는 한국의 의료산업을 예로, 미국에서 early stage career를 develop 하는 것이 훗날 한국과 미국간 양 방향으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모범답안?' 보다는 실제 미국에서의 의사생활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논문 편수, 연구비, 교수 학생비율, reputation을 기준으로 한 The Times의 상위권 rank와 함께 모교 출신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조



금 더 개방되어질 한국의료계와 모교에서 봉사, 연구, 교육, 진료, 리더십, 양질의 의료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데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vision을 실현하시는 학장님이하 교수님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unique career path를 추구하는 멋진 후배님들께 행운을 빕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서울의 모임에서 network를 시작하고 훗날 미국 혹은 한국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직장 동료 혹은 friend(미국식 친구는 선후배의 벽이 없습니다)로 남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1,200여 동문 그리고 가족 분들께서 저희 후배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 학생들의 세계화 교육과 현재 미국에서 아직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후배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 모교 총동창회와 동문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교 방문을 정리하며 인천공항에서  
Green Project Committee  
Sheldon Cho(92), Los Angeles, CA  
Raymond Kim(86) Rochester, MN  
Francis Y. Lee(86), New York, NY  
SNUCMGP@GMAIL.COM

###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신경과를 다녀와서

박정현 (본과 4학년)

#### 들어가는 말

본과 1학년 때부터 저의 꿈은 본과 4학년에 콜럼비아 대학으로 일렉티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미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해 왔고 콜럼비아 대학 병원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컸기에 이번 여름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꿈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 일렉티브 자리에 선출되고 그린프로젝트 장학금의 도움으로 저는 드디어 고대하던 콜럼비아 대 부속병원인 뉴욕 Presbyterian Hospital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Neuro critical care는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Neuro ICU에서의 2주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선진 의료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Ambulatory

neurology course는 콜럼비아 의대 4학년 학생과 함께 들었는데 general neurology 외래를 통해 다양한 신경과 환자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미국과 한국의 진료형태, 의학교육, 수련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Neurologic Intensive Care Unit

NICU(니큐라 읽음)에서의 하루는 오전 7:30분에 시작합니다. 저의 일과는 7:30-12:00 아침 라운드 참관, 12:00-1:00 점심 혹은 점심 컨퍼런스, 1:00-4:00 MICU(내과중환자실), CICU(순환기중환자실), SICU(외과중환자실) 컨설팅 라운드 참관 혹은 NICU에서 시술 관찰(assist), 4:00-5:00 오후 라운드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NICU에 입원하는 환자 군은 대부분 acute stroke나

Intracranial Hemorrhage이고 그 외에 AVM rupture, Traumatic Brain injury, MG respiratory crisis, ALS, Status Epilepticus 등이 있습니다. NICU1과 NICU2로 나뉘지며 NICU1은 위에 언급한 환자들, NICU2는 Subarachnoid Hemorrhage, 뇌종양 등으로 수술한 환자들을 돌봅니다.

총 18 bed 로 이루어진 이곳은 중환자의학의 최신 지견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과중환자실 안에서 베드 4개 정도를 신경과 환자들에게 배당해 줍니다. 그러나 NICU는 전적으로 신경과 중증환자만을 보도록 만들어진 곳이며 neurocritical care training을 받은 전문의들이 상주하며 환자를 돌봅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출신의 레지던트 선생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콜럼비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매일 아침 회진을 들었습니다. 심 여명 남짓한 환자들의 회진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세시간이 넘었습니다. 때로는 네 시간까지 걸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0명 환자의 회진

을 도는 데에는 길어야 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중증의 환자 들이라도 가정해도 환자 한 명에게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은 한국과 비교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시스템의 문제를 다 체크하고 특별히 변화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처치에 대해 다같이 토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토론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수평적이었습니다. 환자를 담당한 레지던트가 먼저 의견을 내면 다른 레지던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수님이 동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의대 학생이 끼어드는다면 레지던트가 생각한 의견에 학생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토를 달았습니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고 상상을 해 서도 안 되는 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학생이 레지던트의 의견에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다른 약을 쓸 수는 없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도중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하는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학생의 무례함에 화가 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그곳에 있는 동안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의 범절의 자리에 대신 자리하고 있는 '적극성' 이 놀라웠고 그러한 적극성이 허락되는 환경에서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회진 시간에 우선 교수님께서 담당 레지던트에게 어떤 처치를 해야 할 지 질문하십니다. 레지던트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레지던트에게 화가 넘어가고 때론 학생들에게 화가 넘어오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 차이는 '자유로운 토론' 대 '강압적인 답 요구' 를 넘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과 '훈계하고자 하는 교육' 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콜럼비아 레지던트 못지 않게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도 똑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보다 환자를 많이 배정받으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기 보다는 교수님의 생각을 읽도록 트레이닝 된 점이 이토록 이 둘을 다른 처지에 놓이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수' 가 아니라 '학생'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미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무척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자리잡는다면 한결 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시간 정도의 심도 깊은 회진이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중 대부분 점심시간에 컨퍼런스와 저널클럽, 케이스 발표 등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한 명이 논문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와 발표하고 대부분 질문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논문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시거나 발표 준비의 미흡함에 대해 꾸짖으십니다. 콜럼비아에서의 저널클럽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같이 점심을 먹으며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준비해온 저널을 그 자리에서 같이 읽으며 연구의 한계점, 좋은 점 등을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저널클럽은 발표자 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자리로서 그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을 '도발' 이 아닌 '다른 생각' 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수평적인 문화와 자유로운 토론 분

위기 만이 NICU의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NICU에선 매시간 환자와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의료진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광범위한 뇌경색으로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증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라면 '여기서 더 도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상황에서도 이곳 의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앞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Multimodality monitoring이 대표적인 예인데 뇌에 probe를 꽂아 환자의 뇌압과 혈류량 그리고 대사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뇌에 출혈을 비롯한 손상을 많이 받아 coma 상태였던 환자가 퇴원 후 두발로 걸어서 NICU를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때론 이와 같이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Ambulatory Neurology Clinic**

NICU에서의 2주간의 실습 후 4주간 General neurology 외래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General neurology 외래는 역사 깊은 Neurological Institute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NICU에서의 역동적인 접근방식과 달리 classic neurologist로서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Dr. Kim, Dr. Roberts, Dr. Daras 세 분의 외래를 매주 참관하게 되었고 일정은 9:00부터 5:0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신경과 외래에서 매우 다양한 환자 군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multiple sclerosis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시간에만 듣고 실제 환자를 본 적은 없었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접할 수 있어 지식적, 경험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병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질환 명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전국 곳곳에서 콜럼비아 대학병원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신

경과의 묘미는 아무래도 그 진단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통해 neurological localization을 자연스럽게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없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하루에 환자를 10명에서 13명 정도 보셨습니다. 한 환자당 3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한국의 진료환경에서보다 더 깊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그리고 환자 자신의 일상 이야기까지 오가며 진료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눈을 마주칠 시간이 있었고 농담이 오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단독으로 사생활이 보호되는 조건에서의 진료는 다음 환자가 같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5분 안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학병원의 진료와 절대적인 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의사들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저렴한 수가로부터 비롯되는 사회보장적인 장점이 있지만 의사 본연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 또다시 '신경과 환자들은 치료되기 힘들다.' 는 의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Back pain, Dizziness 등으로 오는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교수님은 'physical therapy' 처방전을 건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불편함이 지속되지만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 환자가 기댈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neuropathy 를 앓아 이유 없이 감각저하 혹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역시 뾰족한 치료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법이 알려진 몇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들 외에 대부분은 '별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피터 김 선생님께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안타깝지 않으시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에겐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네. 내과 의사라고 해서 다를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실제로 환자를 완치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어. 환자에게 필요한 건 치료법만이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면, 의사라는 직업은 수 천년 전부터

**동창회 본부 업무시간 안내**

월-금: 9AM - 4PM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lmaa@yahoo.com

미주동창회 본부의 업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입니다. 전화와 팩스는 업무시간내에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왔다."

김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의사는 직업의 숭고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치료약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 역시 신경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병리기전과 발견되어야 할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상 의사가 마주하는 신경과적 질환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의 배후에는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를 질병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인성을 베푸는 의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가 아닌 의사만이 갖출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그 진료실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맺는 말**

뉴욕에서 만난 선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는 모두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때론 영어로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지만 분명 그 눈빛과 마음에서는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새파랗게 어린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같이 높고 어려울 수 있을 선배님들을 미국이기 때문에 그토록 편하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NICU에서 저를 처음으로 맞아주시고 늘 따뜻하게 도와주셨던 Alex Choi 선생님, 저의 사소한 질문과 호기심에도 늘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이기원 선생님, 임상 의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Peter Kim 선생님, 저희 학생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정 선생님과 이영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토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미주서울대학교 동창회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처럼 제가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베풀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lmaa@yahoo.com www.snuclmaa.us